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5월 25일)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상월결사는 7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출범식 직후 사부대중이 모여 화이팅 구호를 외치는 모습.

"대학생 전법이 불교중흥"… 전국구 전법조직 문 열다

상월결사,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대학생 전법이 한국불교의 중흥이요. 한국불교의 중흥이 생명의 존엄과 세상의 평화로 이어짐을 실천해 가겠나이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법'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청년 대학생 전법을 위한 매머드급 전국구 전법 조직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했다.

상월결사 전법위원회는 향후 전국 400여 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생 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7월 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스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변대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화두 '대학생 전법'

상월결사가 대학생 전법 전문 조직인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사)상월결사 창립총회에서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고, 전문 조직 구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관련 현황과 전법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후 상월결사는 조계종 포교원과 학교법인 동국대와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 전법위원 22명을 위촉해 전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5월 이후부터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TFT 회의와 교구장 간담회, 종정예하 · 총무원장 스님 보고 등을 통해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지역 · 계층 아우르는 매머드 전국 조직

이날 출범한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지역과 계층 등을 아우르는 전국구 전법 조직체다. 증명으로 조계종 종정예하 원로의장, 총무원장 위원장 맡아 지역본부 등 위원 574명 위촉돼 "전국 대학에 불교동아리를" 목표

자승 스님 청년포교 활성화 원력 전국구 전법조직 구성으로 이어져 "대학생 전법, 불교 보배 양성 불사" 9월 5~6일 전법 방안 주제 워크숍



유정현 대불련 회장과 사부대중이 대학생 전법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계열 전법위원 △지도교수 전법위원 △일반 전법위원 등 총 574명의 출 · 재가자가 전법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전법위원들은 전국 400여 대학에 불교동아리를 단계적으로 신설 ·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 디테일한 전법 계획 필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대학생 전법이 불교 중흥의 여정임을 분명히 하고 그 길에 모든 사부대중이 동참할 것을 발원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의 보배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며 "대학생들과 기존 불자들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수행과 보살행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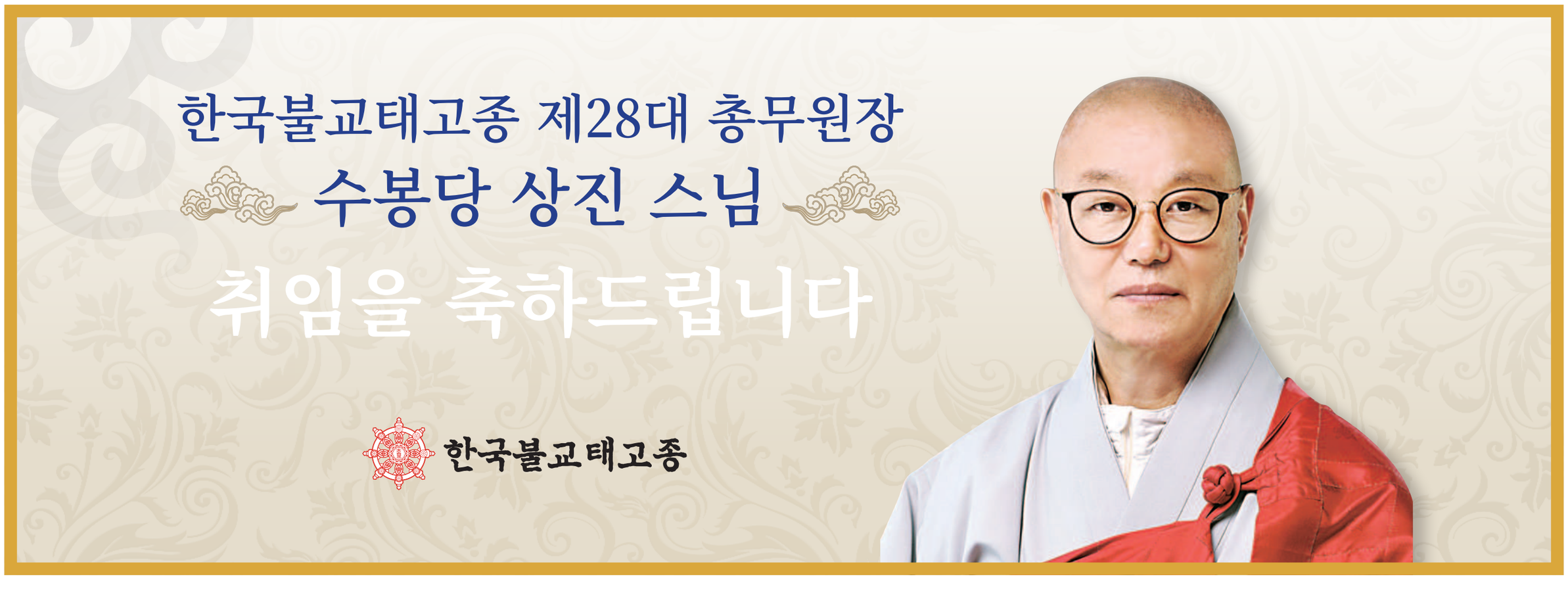
이어 "상월결사는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의 가치와 실천을 현대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오늘의 출범식이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불교 중흥에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디테일한 대학생 전법 계획을 주문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한 진우 스님은 "젊은이들을 포교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을 벗어나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계획까지 촘촘히 세워서 정밀한 전략지침의 매뉴얼에 따라 포교전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부대중이 지혜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학생 불자 활성화에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생 불자 활성화는 종단 제37대 집행부의 최우선 종책인 '천년을 세우다'와 일맥상통한다"면서 "종단 또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불자 활성화 정책을 더하여 다양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은 유정현 대불련 중앙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기원했다. 사부대중은 "한국불교 현실 앞에 사부대중의 마음은 무겁지만 전법위원들의 원력과 대학생의 열정으로 희망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녹여내는 모범이 되고자 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받들고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참된 주인공으로 내 삶 속에서 불교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오는 9월 5~6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대한 공의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사격'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교국가에 친서 발송

7개국 8개 종파 협조 요청
"불도 부산, 법향 나눌 기회"
박형준 부산시장 예방서 강조
부산불교계, 삼보일배로 정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예방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돕기 위한 불교계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6월 11일 송상현광장과 시청 일원에서 봉행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삼보일배 대정진법회.

'부산이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이뤄갑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과 정부기관, 각종 기업들이 나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조계종이 종교계를 대표해 간접지원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불교국가 7개국 8개 대표종파와 단체에 부산엑스포 유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했다. 친서는 베트남승가회 총무원장인 틱티엔 논 스님을 비롯해 네팔불교연합회장, 캄보디아 마하니까야종 승왕, 라오스중앙불교회장 권한대행, 몽골불교중앙센터 간단사 주지, 태국최고승가위원회 최고승가위원, 스리랑카 시암파 종정 스님 앞으로 보내졌다.

진우 스님은 친서에서 조계종이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계승하면서 현직 총무원장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한편, 이웃 종교가 함께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소통과 교류의 도시이자 많은 불상과 경전이 전해진 고대 불교 교류의 중심 항구라고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부산은 범어사와 통도사 등 조계종단 주축 역할을 하는 사찰들이 자리한 불교 도시"라며 "신심 있는 많은 불자들이 활동해 한국에서는 부산을 '불도(佛都) 부산'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부산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면 수많은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불교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여러 국가의 불교지도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법의 향기를 나누는 귀중한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세계 불교도들이 한국불교와 유대를 위해 힘써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해당 국가와 종단에 방문해 부처님 법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의 친서 발송은 우리나라와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으로 같은 문화권인 이슬람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됐다. 스님은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이슬람국가들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접촉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부산엑스포는 1960년대 1인당 GDP 100불인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부산과 남부권을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드는 국익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엑스포가 월드컵 경제효과의 3~4배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 1857년 런던박람회에서 비행기와 전화기, TV 등이 공개된 것처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매일 아침에 하는 108배에 (엑스포 유치를) 하나의 원력으로 더해 발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지난달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스리랑카 라만야파 종정 마쿨레 위말라 마하 나야카 스님에게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카야 스님은 흔쾌히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나 조계종과 한국의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엑스포 개최지로서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는 부산에서도 불교계의 유치 기원이 이어졌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6월 11일 송상현광장과 시청 일원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삼보일배 대정진법회'를 봉행한 것. 행사에는 1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하고 걸음을 이어갔다. 부산불교교육대학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화엄승가회,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자비로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살기 좋은 부산, 불국정토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지극 정성으로 발원한다"며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무해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잘 모셔지길"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정성 답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첫 주부터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을 염원하는 정성이 잇달아 조계종에 전해졌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7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쓰일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보운 스님은 "열암곡이 범어사에서 멀지 않다. 종단이 추진하는 큰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범어사 대중이 뜻을 모았다"며 "사업이 무르익을수록 부산과 경남불자들이 원만성취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인사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잘 모시기 위해 다각도로 입불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다"며 "부산신도들도 열암곡 부처님을 반갑게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스님은 이어 1938년 조계사(당시 태고사) 대웅전 건립불사에 동참한 범어사의 정성어린 후원을 되새겼다. 스님은 "당시 시주질을 보면 통도사에 이어 범어사가 두 번째로 많은 기금을 희사했다"며 "범어사가 앞으로도 부산불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운 스님은 "범어사가 과거에 해왔던 역할을 보면 최근 한동안은 소강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다"며 "사내 대중스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다. 종단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소속 비구니 스님들도 '천년을 세우다'에 힘을 보탰다. 회장 법인 스님(대원사 주지)을 비롯해 지영 · 원타 · 무원 스님 등 봉선사 말사 비구니회 스님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2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 사찰이 대부분 크지 않고 신도가 많지 않을 텐데 종단사업에 힘을 보태주셔서 두 배, 세 배 감사하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가람수호를 잘하기 때문에 봉선사가 더 빛나고 불법홍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사진 오른쪽)은 7월 3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조계종 정무특보 보관 스님이 배석했다.

부산 혜원정사 주지 효명 스님 역시 같은 날 1000만원을 기탁하며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소임을 맡아 매년 1500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하며 불심을 일구고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말사로서 종단 불사에 동참하기 쉽지 않은데 기금을 희사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부산불교를 잘 이끌어 더 많은 불자들을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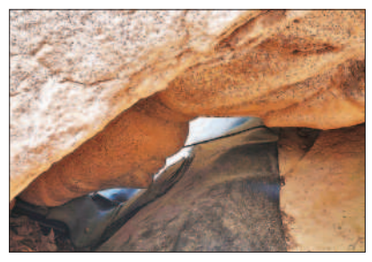
매월 한 차례 '다라니 기도' 봉행

첫째 주 토요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법사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사진>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계종 핵심사업 '천년을 세우다' 천일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8월부터 '다라니 108독 기도'가 더해진다.

첫 다라니 108독 기도는 8월 5일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삼귀의 △반야심경 △법문 △다라니 108독 △정근 △축원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다라니 기도 첫 참여 교구본사는 제10교구 은해사로, 주지 덕조 스님이 법사로 참여한다. 이후 9월 2일, 10월 7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국 교구본사 신청을 받아 기도를 이어간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는 지난 4월 28일 입재해 1차 100일 회향이 8월 4일이다. 다라니 기도는 천일기도 100일 회향을 계기로 기획됐으며, 1차 회향 다음날인 8월 5일부터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매월 계속된다.



이를 주관하는 조계종 미래본부는 천일기도 1차 100일 회향을 앞두고 2차 100일 기도를 접수한다. 2차 100일 기도는 8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며 기도비는 10만원, 기도 접수는 전국사찰 종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미래본부는 "올해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순례의 해로,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의 순례 동참을 요청한다"며 "기도와 순례안내 등 경주시 인근에 거주하는 신심 있는 봉사자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감사합니다

18th SAKYADHITA SEOUL 2023 사캬디타 세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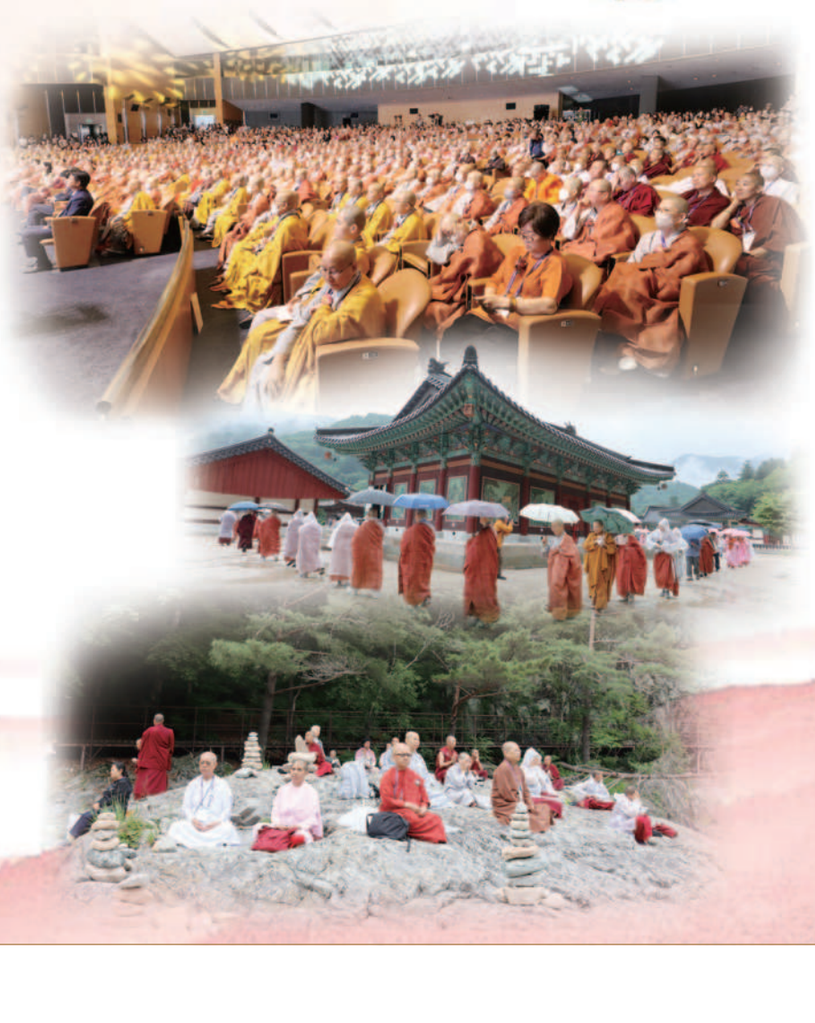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든 분의 응원과 격려로 전 세계에서 모인 부처님의 딸들
(샤카디타)이 지난 5일간의 본대회와 3일간의 사찰순례 기간 동안,
화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유례없는 대회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모든 분들의 노고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더욱
발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샤카디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두손모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대회장 본각 합장



‘명상의 모든 것’ 동국대서 만난다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오는 10월 개막

13~15일, 학술 콘퍼런스 중심
20~22일, 28개 체험부스 운영
동국대 개발한 K-명상 소개도
전문 명상자료 4개 국어 제공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지나며 전 세계적인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상이 다시 떠오른 현대사회.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가는 지금,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명상의 모든 것을 망라한 명상엑스포가 찾아온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오는 10월 13~15일과 20~2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대 및 온라인에서 ‘명상,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개최한다. 지난해 하버드 의대 IMP(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와의 공동주최로 비대면 형식의 수준 높은 강연에 초점을 맞춘 명상엑스포는 올해 주제인 ‘일상’에 맞춰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막부터 13~14일을 장식하는 학술 콘퍼런스는 ‘명상과 다르마’ ‘명상과 일상 수행’이 주제다. 미국 동부에서 활동하는 텐진 프리야다르시 린포체의 기조연설을 기작으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간화선 기조강연’ △인도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의 ‘팔정도 수행’ △영국 에도 쇼닌의 ‘명상과 사성제’ △캐나다 르네트 몬테이로의 ‘여기에서 시작하는 마음챙김’ △독일 비구 아날라요의 ‘명상과 공’ 등 총 6개의 세션이 열린다.

15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는 진행자와 전문 패널이 명상을 주제로 대담에 나선다. 세계 명상 트렌드와 불교 사띠수행의 원리, 명상과 웰니스 산업과의 관계 등을 심도 있게 짚어본다. 또 이날 오후에는 비대면 · 대면을 혼합해 AI, 메타버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명상기기 등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명상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팔정도 광장에 설치된 세계명상 체험부스 조감도.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28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은 20~22일 펼쳐진다. 오프닝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체험 가능하며, 팔정도 광장에선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영되는 국가별 명상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미국 하와이, 티베트, 독일, 일본, 중국 · 대만, 프랑스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팔정도를 형상화해 팔각 모양의 목공 돔 부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명상 첨단테크 기기 △남산 걷기명상 △전통 한의학과 명상 △셀프아트 명상 △유학생 명상 △향기 명상 △고요힐링명상 △내 몸 밸런스 찾기 △명상 포토스팟 △마음바다 쓰기명상 △차 명상 등의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명상엑스포에서는 일상에서 여러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동국대 자체 개발 명상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K-청소년 하루 명상과 K-청소년 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그것. 동국대는 K-명상 보급에서 대상자를 특정하고 방법론을 구체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한편, 설계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모델링을 통해 정통과 응용이 융합된 개발 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동국대가 최초로 개발한 명상 아카이빙 프로그램 ‘명상도서관’은 명상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상도서관은 협회, 기관, 전문잡지, 신문 등으로 소개된 각종 명상 자료를 4개 언어(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로 제공한다. 자료는 동국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7월 6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하면서 직접적인 명상 체험의 기회가 보다 중요해졌다”며 “명상엑스포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명상센터 건립과도 맥이 닿는다. 명상 프로그램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행선연구원 15일 제15회 계절발표회

‘교재로서 한마음요전’ 주제 등

종교교육 교재로서 〈한마음요전〉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1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법우 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이 ‘일본 정토종 종조 호넨(法然)의 보리심관(菩提心觀)’을, 김은영 교수(동국대)가 ‘종교성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한마음요전〉 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원영상 교수(원광대), 이석환 교수(동국대), 김영래 박사(고려대), 유성욱 교수(강원대)가 참여한다.

또한,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사’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대구시립예술단 자문위 폐지 유감”

조계종 종평위 · 중앙중회, 홍준표 시장 비판

대구시의회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가 담긴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가결하자 자문위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불교계서 잇달아 항의 성명이 발표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7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됐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대구시립합창단이 그동안 공연에서 60%~90% 비중에 이를 정도로 찬송가를 선보여 종교편향 논란이 발생했다는 데 주목했다. 종평위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2021년 12월 자문위 설치조례를 개정해 운영했다”며 “하지만 자문위 폐지로 시립합창단의 퇴행과 종교간 차별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자문위의 재설치 △대구시 산하 기관의 종교편향 방지책 마련 △시립합창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하며 “대구시민의 정서적 불편함이 가중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져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7월 3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도 성명을 통해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선광 스님은 성명에서 “불교계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유보를 요청했지만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했다”며 “종교 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광 스님은 “홍준표 시장은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라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4대 종교인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국내 4대 종교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상임대표 양기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위원장 인영남), 원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오광선)는 7월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4대 종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4대 종교인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철회와 대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4대 종교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 주장을 답습하며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침묵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치계는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머리를 모아 연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 △일본의 투기 계획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철회 촉구 및 대안 강구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가 면죄부나 정당성 부여하지 않음 등을 한일 양국 정부에 요청했다.

사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 세계인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며 “근시안적인 이익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경우, 과보는 무겁게 다가와 후손의 고통으로 전가됨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정부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조계종 사노위도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계율수행 콘텐츠 영상으로 만나요

조계종 포교원 개발 공개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계율 수행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행 콘텐츠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5대 수행법(염불 · 간경 · 참선 · 계율 · 보살행) 동영상 콘텐츠 개발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콘텐츠는 조계종 홈페이지와 유튜브 조계종포교원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5분 36초 분량의 계율 동영상에서는 기존 한문 형식의 원론적인 설명을 탈피하고 현대인의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도입, 보다 친근하고 설득력 있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예를 들어 불투도(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에서는 다른 이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한다거나 사무실에서 커피믹스 등을 가져가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안으로 마지막 남은 ‘보살행’ 수행 동영상을 마무리해 5대 수행법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5대 수행법 콘텐츠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02-365-7747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대만 5일
▶불광사-법고산사-자제공덕회-자항사-101타워
▶1,490,000원 부터

베트남+캄보디아 6일
▶인간이 만든 신의 도시 앙코르와트
▶1,490,000원 부터

일본(오사카/나라/교토)
▶백제 불교문화가 남아있는 관서 지역 순례

치앙마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둔 [도이수텝]

인도네시아
▶세계7대 불가사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

*출발일, 인원수, 항공, 호텔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 빵빵 ‘뭉밀이’로 행복 메시지 전해요”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① 현밀 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자승 접목시킨 ‘뭉밀이’ 제작
캐릭터에 담긴 메시지는 ‘행복’
일상공감 이어 굿즈 제작 희망
MZ에 자연스럽게 불교 소개도

“도반들과 밭에서 울력을 하다 하늘을 봤는데 뭉게구름이 너무나 예뻤어요. 구름을 보며 위로받은 그날, 이를 이미지로 구현해야겠다 생각했죠.”

뭉게구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뭉밀이’로 최근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된 현밀 스님은 “불교적 의미가 담긴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뭉밀이’ 탄생 배경을 알렸다.

‘뭉밀이’는 동글한 얼굴에 복스러운 볼을 가진 귀여운 동자 캐릭터다. 이름은 뭉개구름의 ‘뭉’과 현밀 스님의 ‘밀’에서 따왔다. 빵빵하게 강조된 볼을 보며 스스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스님은 ‘뭉밀이’를 주인공으로 다양한 일상을 그림으로 구현, 인스타그램 카툰(일명 인스타툰)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현밀 스님은 무더운 여름 짜증이 날만하지만 수박 하나에 행복해하는 ‘뭉밀이’를 보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무언가로 짜증을 날려버릴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또 방긋 미소, 해맑은 목소리가 담긴 인사야말로 행복한 하루를 위한 소소한 보시라고 설명하며 인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해보자고 응원하기도 한다.

인스타툰을 포스팅하며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남긴다. 불교가 어렵지 않게, 또 자연스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밀 스님은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공감, 세대공감, 환경공감을 하며 불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밀 스님은 ‘뭉밀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고 위로,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밀 스님은 자신에게 불교는 곧 행복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스님은 졸업과 함께 100일 동안 3000배를 경험하면서 ‘출가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독실한 불자였던 부모님과 고모 덕분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던 스님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 2016년 행자생활을 시작했고 2017년 수계했다.

이후 학업에 열중하면서 틈틈이 그림 그리기를 즐겼던 스님은 수업에서 사용할 패드를 구매하면서 일러스트에도 눈을 떴다. 수년간 공부와 수행으로 지쳤을 때, 또 일상생활 중에 떠오른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하나씩 그려왔던 것들이 ‘뭉밀이’로 구현됐다.





인스타그램에 연재되고 있는 ‘뭉밀이의 일상툰’ 中. <현밀 스님 제공>

현재 청도 운문사에서 도감(都監)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곧 습의사 소임도 맡게 된다. 거기에 창작활동까지 하고 있으니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N잡러’다. 출가 6년째. “불교를 통해 나다운 것이 뭔지, 수행자다운 것이 뭔지 알게 됐다”고 말한 현밀 스님은 “진실한 삶을 통해 소소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N잡러’ 일상 속에서도 스님은 6월말부터 주 1회씩 인스타툰을 통해 불교 일상을 전하고 있다. 스님은 “일과 도중 잠시 쉬는 동안 그림연습과 함께 콘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까,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감성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한다”면서 “바쁜 일상 속에도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뭉밀이’를 통해 스님의 수행생활과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는 게 현밀 스님의 희망이다.

뭉밀이 캐릭터를 활용해 인스타툰뿐 아니라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이모티콘을 비롯해 스티커, 키링, 수행노트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길 기대한다.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과도 협업을 통해 불교를 더욱 신선하게 알리고 싶다는 서원도 생겼다. 스님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 불교 창작물들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네이트’,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위촉

7월 3일, 멤버 8명에 위촉장 수여
스리랑카에 책상·의자 80개 후원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홍보대사로 보이그룹 루네이트(LUN8)가 위촉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은 7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루네이트 멤버 8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빛을 품은 8명의 소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루네이트는 진수, 이안, 은섭, 카엘, 준우, 도현, 타쿠마, 지은호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루네이트 멤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응원했다. 그러면서 “8명 멤버를 직접 만나 보니 모두가 멋지다”면서 “BTS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덕담했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루네이트는 7월 3일 스리랑카에 책상과 의자 80세트를 전달했다.

위촉식에서 루네이트는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국가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위해 단칸다 초등학교(Dankanda Maha Vidyalaya)에 책상과 의자 80세트를 전달했다.

진우 스님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처럼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루메이트의 소망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덕담하자 그룹의 리더 진수 씨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감사하다.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홍보대사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멤버 카엘 씨도 “데뷔 전부터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영광”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후원을 계기로 좋은 변화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면서 “조계사서 기도 많이 하면 불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어려운 연습생 시절을 이겨내고 데뷔한 멤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스님은 “태풍과 장마, 땡볕을 견뎌내야 열매가 여물 듯 현재를 성실히 임해야 여유로운 삶도 올 것”이라며 “쉽게 지치지 말고 마음을 다잡으면 행복은 배가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위촉장 수여식 후에는 멤버들 한 명 한 명 손목에 단주를 채워줬다.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작한 108 명상집 ‘가만히 눈을 감고’를 선물했다.

한편 루네이트는 6월 15일 데뷔앨범 ‘컨티뉴’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타이틀곡인 ‘와일드 하트’와 ‘보이저’로 강렬하면서도 패기 있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뷔앨범 발표와 동시에 네덜란드 톱 앨범 차트 1위 등을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임은호 기자

2023년 청소년 영화캠프 동참자 모집

7월 31일~8월 4일…중1~고2 신청가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2023 청소년 영화캠프가 7월 31일~8월 4일 동국대에서 진행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영화캠프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영상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접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미래 영상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K-컬쳐의 청소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청소년영화캠프는 현업 감독의 영화제작 특강을 시작으로 영화 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촬영과 편집을 통한 영화 실 제작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제작한 작품은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기간 중 청소년 영화캠프 시사회를 통해 대한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접수는 7월 10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중1~고2)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7월 15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02)2264-0160 임은호 기자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불교문화 만나다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6월 29~30일 보은 법주사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해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보은 법주사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협력해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단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관계자는 “글로벌 기획단 ‘아우르기’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주도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전통사찰이라고 생각해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총 21개국 50여 명의 유학생 단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법주사 팔상전, 쌍사자석등을 비롯한 불교문화유산 탐방과 싱잉볼 명상, 108배와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신성민 기자

인천 지선사,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원

건학위 ‘지역미래장학’ 기금 전달
인천 지역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인천 지선사(주지 덕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는 7월 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선사 2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이날 43회를 맞이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지선사는 대표적인 자비나눔 도량으로 명절맞이 기부, 소외계층 반찬나눔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선사는 지난해 장학금을 수여받고 활동을 열심히 한 1기 장학생 3명과 신규 장학생 7명 등 총 1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지선사 주지 덕환 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동국대 장학제도 중 가장 신의 있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장학생이 된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동국인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덕환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진명 스님은 “덕환 스님은 평소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다”며 “덕환 스님은 동국대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를 통해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강수빈(경제학과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지선사와 덕환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수빈 학생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받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경주 흥륜사서 고려 공양구 54점 출토

경주시·춘추문화재연구원
흥륜사 서편 조사현장 발굴
통일신라~고려 건물지 확인


경주 흥륜사 서편에서 발굴된 청동 공양구 일부.

경주 흥륜사 서편에서 고려시대 공양구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재)춘추문화재연구원(원장 양인철)은 “경주 사정동 소재 흥륜사 서편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한 발굴조사 중에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찰 관련한 건물지와 담장지, 우물 등의 유적과 청동 공양구 등 다양한 유물을 확인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현재 흥륜사가 자리한 곳은 사적 ‘경주 흥륜사지(興輪寺址)’로 지정돼 있으나, 사찰 주변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명 기와가 다수 수습돼 학계와 지역에서는 ‘영묘사지’로 보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건물의 적심과 담장지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유물이 발견된 곳 역시 사역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흥륜사(興輪寺)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하나로 고구려 승려 아도(阿道)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차돈의 순교로 중창(527~544)돼 국가 대사찰로 유지되다가 조선시대에 소실로 폐사됐다. 영묘사(靈廟寺) 역시 신라 칠처가람 중 하나로 선덕여왕 때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며, 조선시대 초기에 폐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 토기 조각들을 비롯해 청동 공양구 등을 넣은 철솥이 매납된 채 확인됐으며,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추정 ‘영묘사(靈廟寺)’명 기와 조각 등이 출토됐다.

특히 철솥 내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려시대 청동 공양구와 의식구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철솥은 지름 약 65cm, 높이 약 62cm의 크기로 외부에 4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안에는 작은 기와 조각들이 섞여 있는 흙이 30cm 정도 차 있었고, 그 아래에서 청동 향로, 촛대, 금강저 등 고려시대 불교공양구와 의식구 등이 확인됐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물은 모두 54점이며, 일부 유물은 부식돼 철솥 바닥부분에 붙어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상태가 아직 파악되지는 못했다.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유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춘추문화재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더프라미스, 협력 인재 모집

라오스 KOICA 운영 등 수행
7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들이 올해 하반기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인재를 모집한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2023년도 하반기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에 함께할 영프로페셔널(YP)를 모집한다.

세부업무는 △라오스 KOICA사업 운영 및 통계 분석, 회계 정산 관리 보조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유튜브 등 SNS 관리 등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면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8월 1일부터 20024년 2월 29일 약 7개월간이다. 로터스월드 홈페이지(www.lotusworld.or.kr)에서 입사지원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이메일(mitra@lotusworld.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7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02)725-4277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도 해외봉사단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 함께 지원해 나갈 영프로페셔널를 모집한다.

주요 담당업무는 △KOICA-NGO 봉사단 에듀콥스 홍보 지원 △청년사회혁신학교 강사 섭외 및 보고서 작성 등 운영 보조 △재난 및 긴급구호 발생에 대비한 훈련 지원 및 참가 등이다. 070-4903-8105 임은호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여름불교학교'가 열린다. 물놀이를 비롯해 영어공부와 명상, 선무도 수련,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을 채비를 마쳤다.

신나는 여름방학! 사찰서 물놀이하고 영어공부도

모두가 기다리는 여름불교학교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여름수련회가 조금씩 재개되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신행 ·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산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린이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찰 내 워터파크 · 숲체험 · 명상
영어 · 인성 · 선무도 교육도 인기
'종합선물세트' 프로그램들 풍성
"야답법석 즐기려면 사찰오세요"

임은호 · 하성미 기자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놀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23일 경내 앞마당에서 '2023년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아이좋아! 물놀이 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교는 5세부터 청소년까지 참여 가능하다. 물놀이 마당, 체험마당, 먹거리부스, 놀이마당, 포토존 등으로 운영되며 워터 슬라이드가 조성된 대형 풀장에서 물놀이와 함께 부채만들기, 타투스티커, 줄넘기, 조별 공굴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티셔츠 등 기념품도 제공된다. 선착순 300명 모집. 03)768-8638

영어를 배우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캠프로 유명한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7월 30일~8월 1일 선원 내에서 '제15회 자우 스님의 신나는 영어 담마 캠프'를 개최한다. 워터파크 물놀이와 영어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게임 등이 준비됐다.

자우 스님은 "'행복은 지금 여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바로 지금 이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예쁜 마음을 찾아볼 예정"이라면서 "스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야단법석을 통해 마음이 신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6012-1731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는 7월 27일~8월 12일 총 4회에 걸쳐 '2023 해인사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참된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을 나눠 진행된다. 사찰 기본예절교육, 팔만대장경 관람, 성철 스님 사리탑 명상, 홍류동계곡 물놀이, 1080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각 부별 30명 선착순 모집. 055)934-3006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5~6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물의 나라 홍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테마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미니운동회 및 레크레이션, 보물찾기 등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찬불가와 함께 배우는 율동 시간이 마련되며 치유의 소리 싱잉볼 명상으로 마음의 청량함도 함께 선물할 예정이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매년 어린이 포교를 위해 여름수련회를 개최해왔는데 코로나로 중지됐던 기간이 아쉬웠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계획한 만큼 사찰에서 보낸 한여름의 추억이 마음에 불법의 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등학생 선착순 50명. 051)508-0345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7월 30일~8월 5일 경내 일원에서 '제63회 화랑수련회'를 개최한다. 화랑수련회를 통해 천년고찰 불교문화체험과 산사의 기운을 받으며 호연지기를 익히는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주일 간 공동체 수행 생활을 통해 협동심을 배워 미래 사회 리더십을 육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승병의 기개가 살아 숨 쉬는 선무도 수련과 신라시대 화랑의 기상을 일깨우는 승마와 국궁, 자아를 찾아가는 108배가 준비됐다. 아울러 자아성찰 및 예절 교육을 위해 힐링명상과 요가 수련, 발우공양, 다도 등을 진행한다.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교육도 이어진다. 문화유적은 동경주 일대로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해중릉을 방문하며 함월산 및 감포 바닷길 트레킹도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할 수련회가 될 것"이라며 "선무도와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춘 성지로 신라의 화랑 정신을 마주 할 수 있는 골굴사에서 움직이는 선(禪)을 체험하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55)775-1689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8월 12~13일 경내 일원에서 '삼광사 어린이 여름문화캠프'를 개최한다. 유튜브 제작과 로봇과학, 응급구조, 공예 미술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마음을 알아보는 미술심리 상담과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사찰탐방과 명상, 108배, 탑돌이, 다도 시간도 진행된다.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물놀이와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삼광사 측은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문화체험과 직업 체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 선착순 100명. 참가비 무료. 051)808-7111~6

마산 정법사(주지 광우)는 7월 22일 경내에서 '불기2567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어린이를 위한 명상 마인드래치(Mindratch)와 만(卍)자와 수행을 상징하는 물고기, 종, 연꽃 등을 만드는 도미노 활동이 진행된다. 마인드래치는 마인드와 스크래치의 합성어로 인쇄된 불교 관련 도안을 나무펜으로 긁어 완성하는 심리치료 미술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진행되는 도미노 활동은 불교 관련 도안에 맞춰 도미노를 쌓아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르는 조별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 외 정법사를 알아보는 미션놀이와 레크레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며 100명 선착순이다. 참가비 무료. 055)246-8393

이밖에도 **순천 송광사**(주지 자공) 는 7월 28일~8월 20일 4차에 걸쳐 '제50회 송광사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매회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특히 8월 19~20일은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061)755-0107

구산선문 최초가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주지 승묵)는 7월 27일~8월 13일 3차에 걸쳐 대승불교의 정수를 알아가는 '여름 배움의 숲' 대중강좌를 개최한다. 010-9654-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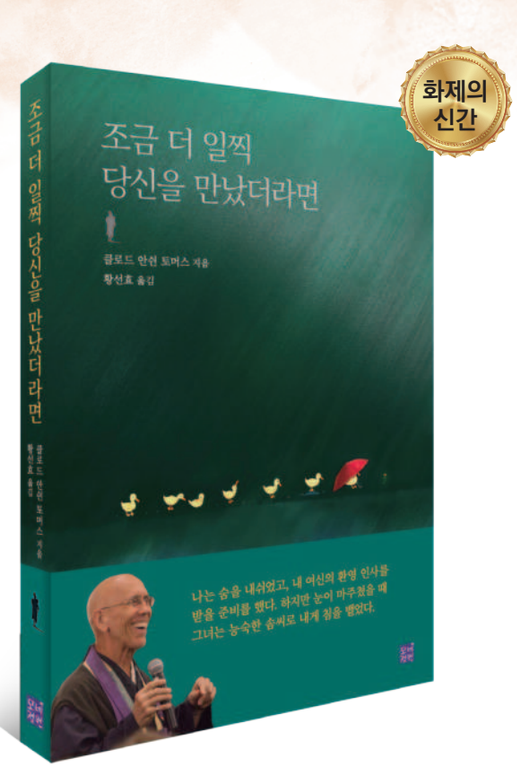
김천 직지사(주지 장명)도 8월 4~6일 경내 만덕전 등지에서 '어린이 여름 캠프'를 실시한다. 박물관 관람 예절과 찬불가 배우기, 우리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퀴즈 올림픽 등이 준비됐다. 054)429-1716

불교계 단체들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8월 1~5일 일본 큐슈 사가현에서 '제12회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과 지도자 5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사찰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가정 홈스테이, 전통문화와 놀이 체험,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723-8090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8월 4~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및 마곡사 일대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를 연다. '찬란한 도반, 빛나는 지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대회는 사찰순례와 특강, 청춘토크파티 등이 이어진다. 찬란한 지금을 보내고싶은 20대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10-7323-0239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법의 사표, 큰스님이 그립습니다”

지오 대종사 영결식, 범어사 보제루서 엄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등
3000여 사부대중 추모 행렬
후학들 “가르침 새기며 정진”
49재 8월 14일 서울 불광사



대강백 정혜당 지오 대종사의 영결식이 7월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엄수됐다.

“추운 겨울이 온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스님께서 가시고 난 지금에야 비로소 스님의 법향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정혜당 지오 큰스님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옵고 다시 이 땅에 중생 제도하는 거룩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후학 양성과 역경(易經) 불사로 전법행의 사표가 되어온 대강백 정혜당 지오 대종사의 영결식이 7월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엄수됐다. 범어문도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은 △명종5타 △개식 △삼귀의 △영결법요 △행장소개 △추도입정 △법어 △영결사 △추도사 △조사 △조가 △헌화 △조의 및 조전 소개 △상좌대표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원로의원 정여 스님, 주지 보운 스님, 중앙종회의원 무관 스님, 석산 스님을 비롯해 금하광덕문도회 문장 지정 스님 등 문도회 스님과 용인 관음사 주지 대혜 스님, 조원호 불광법회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해 추도했다.

지유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생로병사 온갖 고통에 괴로움을 겪는다. 육신을 버리고 집착을 여의어 고통에서 모두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지오 대종사를 추모했다.

금하광도문도회 문장 지정 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께서는 교학에 밝은 혜안으로 젊은 시절부터 후학 양성과 역경 저술에 노력하신 대강백이자 불교계에 모범을 보이신 수행자”라며 “정토에 가셔서 잠시 휴식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이어지러운 사바세계를 불광정토(佛光淨土)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슬픔을 삼켰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범어사 강당에 여전히 큰스님의 음성이 남아 있고 책상에는 스님의 온기가 남아 있다”며 “스님과 함께한 옛 일이 오늘처럼 생생한데 어찌 이 모든 것을 두고 세연을 다하셨습니까? 너무나 이른 작별”이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서둘러 떠나신 만큼 속환사바하시어 대기대용의 설법을 토해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조원호 불광법회장은 “스님께서 법상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은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의 화신인 듯했다”며 “열반하기 직전까지도 역경에 매진해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펴내신 것은 오로지 중생에게 법음을 전해주시겠다는 보리심의 발로이자 이 시대 불교의 사명인 전법행의 사표”라고 상찬했다.

상좌를 대표해 대혜 스님은 “은사스님이 걸어오신 수행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한다”며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수행해 조금이나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은 인로왕번과 만장기를 들고 장의행렬을 장엄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며, 스님의 법구는 범어사 경내를 돌아본 후 연화대로 이운됐다. 법구가 연화대에 안치된 뒤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고 외치며 흐느꼈다. 뜨거운 불길 속에 스님의 법구는 마지막으로 전하는 소리 없는 법문이 되어 금정산 아래 흩어졌다.

정혜당 지오 대종사는 1947년 음력 10월 7일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으며, 1970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광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2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5년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 역경사를 수료했으며, 1976년부터 40여 년간 해인사, 범어사, 송광사, 통도사, 대만 묘종사, 중국 안휘성 감로사, 기원선사, 중국 양주 고민선사 등 제방 선원에서 35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범어사 제97, 98회 보살계 수계법회 유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범어사 승가율원 율원장,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스님은 6월 27일 오후 1시 32분 범어사 서지전에서 임종게 ‘신수피염의(身雖披染衣)하나 심의비정색(心衣非定色)이라. 아금탈양의(我今脫兩衣)하니 불공수자나(佛恐羞自裸)이라. 몸은 비록 염의를 걸쳤으나 마음의 옷은 정해진 색이 없어라. 내가 지금 두 옷을 다 벗어버리니 부처가 나신(裸身)이 부끄러워 도망가네’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세수 77세, 법랍 54년.

스님의 저서로는 〈사성체경〉 〈팔성도경〉 〈치선병비요경〉 〈불자독송집〉 〈불교교리(구사 유식 5위 75과 100법)〉 〈부처님 법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리(불설법멸진경)〉 등이 있다.

한편, 지오 대강백의 49재는 7월 3일 용인 관음사 초재를 시작으로 10일 2재, 17일 3재, 24일 4재, 31일 5재, 8월 7일 6재가 봉행되며, 49재는 8월 14일 서울 불광사에서 엄수된다.

부산 생명나눔 생명존중 강좌

7월 21일, 서면 영광도서 8층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7월 21일 오후 1시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 -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개최한다. 부산 생명나눔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강좌는 생명나눔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진은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복춘희 前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장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접수한 수강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부산 생명나눔은 “장기이식분야 의학이 발전해도 이식에 필요한 장기의 부족이 많은 환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과 장기기증에 대해 알려 불자와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등문화제, 25만 명 즐겨”

부산불교연합회 6월 30일 부산연등회 실무 평가회


부산불교연합회가 6월 30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개최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회향 실무자 평가회.

올해 ‘불도(佛都) 부산’을 장엄한 부산연등문화제에 25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6월 30일 부산 더파티 시청점에서 ‘불기2567년 부산연등축제 회향 실무자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는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연등축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실무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가회서는 올해 부산연등축제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체험한마당과 소원등 달기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장엄등과 전통등 특별전 등 전시 관람에는 총 3000여 명이 찾아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부산연등문화제 기간에는 평일 1만 명, 주말 3만 명 등 총 25만 명이 찾았으며, 시민들은 소원등을 1만여 개를 달아 불우이웃돕기에도 동참했다. 소원등 성금은 이달 중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느티떡 및 호국영령 위령재, 관불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해 부산연등회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선 사항으로는 전통등 강습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찾아가는 강습회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전통등 제작 기술을 보급해 특별전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특별전 전시장소도 접근성과 대중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부산연등회는 행사 일시와 장소가 갑자기 바뀌면서 출발시간 지연 및 좁은 행사장 동선 등 크고 작은 차질이 발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시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축제를 원만히 회향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공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행사 중에 다소 준비와 진행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 여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회에서는 부산연등축제를 빛낸 우수단체 시상과 불기2568년 부산연등축제 아이디어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우수단체는 여래원선이 선정됐으며, 아이디어 최우수상은 권수혁 내원정사 신도가, 우수상은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이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김진명 작가 초청특강

‘어떤 힘을 기를 것인가’ 주제로


홍법사가 7월 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개최한 초청 특강에 나선 김진명 작가.

홍법사(주지 심산)가 7월 1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김진명 작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인생, 어떤 힘을 기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홍법사 개산 20주년을 기념하며 명사 초청을 통한 인문학의 깊이를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진명 작가는 600만부 밀리언셀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이자 〈황태자비 납치사건〉 〈하늘이여 땅이여〉 〈천년의 금서〉 등 수많은 작품으로 대중과 호흡해왔다. 특강은 환영사 및 작가 소개,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강 이후 김진명 작가의 신간 〈풍수전쟁〉 친필 사인전도 진행됐다.

김진명 작가는 “인류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생존 경쟁에 휘말리고 힘을 키워야만 한다. 전 세계인들은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런 노력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에 어떤 힘이 가장 좋은지 찾고 길러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힘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식과 지위 돈 등 외면의 힘이다. 외면의 힘은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 이와 반대는 내면의 힘이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위해 자신이 손해를 받고 불편함도 감수하는 인류애가 불교다. 인류의 스승들은 약자와 동행하며 선행과 자비를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작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인연이 홍법사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 함께하며 특강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생 신도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초청해 이 공간이 더욱 새롭고 뜻 깊게 느껴진다”며 “오늘 특강은 김진명 작가의 사상을 직접 듣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한 자리를 열어주신 주지스님께 감사하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백양사 쌍계루, 스님·문인 교류 화합 성지”

백양사, 7월 1일 쌍계루서 ‘산사 인문학토크’ 개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려·조선·근현대 아우르는
수많은 학자들과 소통 이뤄져
400여 수 글, 240여 수 전해



백양사는 지난 7월 1일 경내 쌍계루에서 인문학 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지 무공 스님과 방송인 김병조씨가 쌍계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조선 8경중 하나였던 백양사 쌍계루의 역사적 의미를 찾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는 7월 1일 쌍계루 앞마당에서 ‘백학 타고 백양에 노닐다’ 라는 주제로 특별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백학봉·쌍계루 음악극 ‘바람이 머무는 곳, 물길이 만나는 곳’ 공연과 산사 인문학 토크가 이어졌다.

이날 산사 인문학 토크에서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에 오랜 역사 속에서 유학자와 스님들이 교류했던 백양사의 특별한 장소”라고 말하며, “각진 국사께서 1350년 백양사를 중창하고 처음 쌍계루를 지었으나 홍수로 인해 훼손됐다. 1377년에 누각을 복원하고 정도전, 이색, 정몽주 등 당시 최고의 문장가들이 글을 남기면서 고려와 조선시대, 근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글들이 이곳 쌍계루의 현판으로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그 후 400여 수의 많은 글들이 쌍계루에 걸려있었으나, 지금 남아있는 것은 240여 수가 남아 있다”라고 쌍계루의 특별했던 역사를 설명했다.

대담자로 나선 김병조(방송인겸 한학자)씨도 쌍계루에 대해 “지역의 화합, 이념의 화합,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의 화합이 이뤄진 곳으로, 시대와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과 노소를 초월한 교류의 장소는 쌍계루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양사는 이날 산사 인문학 토크에 앞서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를 야외 음악극 형식으로 풀어 이날 선보였다.

최민씨가 극작과 연출한 음악극에는 바리톤 권용만(정몽주 역), 바리톤 김종우(정도전 역), 테너 장호영(보부상A 역), 배우 이승학(보부상B 역), 이승규(작곡, 피아노) 등이 출연해 백학봉, 쌍계루와 두 대학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전시도 눈에 띄었다. 전시에는 백양사의 문화재를 소개하는 천과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스님의 다과가 선보여 행사의 풍미를 더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진행한 이날 인문학 토크 행사는 장성군이 주최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했다.

10돌 울산 지장정사, 광우 스님 초청 법회

7월 2일 대웅전에서 열려
광우스님 “선업 공덕 쌓길”



울산 지장정사가 창건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BTN불교TV ‘소나무’ 프로그램 진행자 광우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7월 2일 울산 지장정사 2층 대웅전에서 열린 기념법회는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축원무, 지장정사 연혁, 축사, 관음조합창단 음성공양, 내빈소개 및 주지스님 인사, 광우스님 법문, 석가모니불정근, 사홍서원, 공지사항, 폐회순으로 봉행됐다.

지장정사 주지 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개원한 지장정사가 지역불자들의 소중한 기도처로 발돋움했다”며 “앞으로 불자들과 함께 이웃에게 베푸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를 대표해 이병호 前울산불교신도회장은 “지장정사 현우스님께서 10년 만에 방향을 마련하고 신도들을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지장정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님들의 설법을 잘 듣고 회향해 부처님의 가피를 가득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주지스님과 신도님들의 원력으로 오늘날의 지장정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지장정사가 될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리고 행복한 불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면 또한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며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 도량에서 합장하고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이다”며 “누구든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염불 한 번만 해도 깨달음에 인연이 심어지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법회 후에는 광우스님의 저서 ‘가시를 거두세요’ 사인회가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 故김영환 장군 호국 정신 기리다

7월 3일 대적광전서 추모재 봉행
혜일스님 “대장경 지킨 결정 감사”


법보종찰 해인사는 7월 3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봉행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6.25 한국전쟁 당시 폭격에서 팔만대장경을 지킨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를 봉행했다.

7월 3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사 교무국장 진각 스님의 사회로 봉행된 故김영환 장군 호국 추모재는 故 김영환 장군 행적 소개, 주요 내빈 분향 및 헌다, 봉행사(주지 혜일 스님), 추모사 , 내·외빈 소개 및 헌화 (기관장, 유가족), 추모재 의식 봉행, 유가족 인사말씀, 사홍서원, 해인사 김영환 장군 공적비 참배 순으로 봉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올해는 민족간 전쟁이 발발한지 73주년,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시간이 흘러도 전쟁의 아픈 상처는 해결되지 못한 아픔으로 남아 있다”면서 “해인사 사부대중은 故 김영환 장군의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가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신념으로 우리 공군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결정에 대장경과 인연있는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유재문 공군교육사령관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김영환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며, 6.25전쟁 기간 중 수많은 항공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최고의 전투조종사였다”면서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신 장군의 높은 뜻과 팔만대장경에 담긴 호국 의지를 이어받아 조국의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군본연의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도 추모사를 통해 “장군께서 현명한 판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지켜 내신 덕분에 지금의 해인사가 천년고찰로 남을 수 있었고, 호국불교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될수 있었다”며 “합천군은 김영환 장군님께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지켜 낸 거룩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의식에 이어 故김영환 장군의 아들 김정기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추모재를 봉행해 준 해인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정기 씨는 “전쟁 중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팔만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의 아버님 ‘고 김영환 장군’ 을 가족 대표로써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개국 15돌 울산BBS ‘마음나눔 토크쇼’

6월 29일 울산 KBS홀서 열려
힐링멘토 산옹 스님 대중 강의
박현빈, 주병선 등 축하무대도



BBS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6월 29일 울산 KBS 홀에서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 특집 공개방송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위해 마련됐다.

이진용 BBS 울산불교방송 사장은 “누구보다 울산의 현 상황과 울산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산옹 스님의 명쾌한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가 우리 중생과 함께 숨을 쉬고 호흡하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가르침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시민들에게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은 항상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뒤를 돌아보고 여유를 찾는 그런 도시이기도하다”면서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힐링멘토로 나선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울산 백양사 주지)은 ‘일상의 행복을 찾아서’ 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가?’ 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삶의 목적을 설정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선지식을 만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축하공연에선 가수 박현빈과 주병선, 설하수, 마이진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큰 활력을 전했다. 이번 토크쇼는 BBS-TV를 통해 7월 12일과 14일, 16일 등 모두 3차례 방송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복지재단, 고창군 노인복지관 위·수탁

6월 26일 협약식 진행…
2028년까지 위탁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과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6월 26일 고창군청 군수실에서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위·수탁 협약식에서는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참석해 복지관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약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발전 등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운사복지재단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경우 스님은 “2007년부터 복지관을 운영해온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성 옥천사, 독립지사 선양 성지로 발돋움

6월 29일 백초월 스님 순국비서
순국 79주년 추모 다례재 봉행해
마가 스님 “선양 사업 추진 계획”


고성 옥천사는 6월 29일 고성군 영오면 금산마을 백초월 스님 순국비 앞에서 열린 스님 순국 79주기 추모 다례재는 봉행했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일제 강점기 불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순국 7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6월 29일 고성군 영오면 금산마을 백초월 스님 순국비 앞에서 열린 추모다례재는 백초월 스님 행장 소개, 추모사, 봉행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면서 “백초월 스님의 순국 79주년 추모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애국애족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옥천사는 일제 치하에서 9명의 독립지사가 활동을 하신 곳으로, 고성군과 함께 올 가을 그 분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립지사들의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추모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은 고성군 영오면 금산마을에서 태어난 우리 고성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라며 “오늘 79주기 추모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의로운 삶과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겨 우리 고성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초월 스님의 위대한 공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이동희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의 추도사와 함께 스님의 후손 백외식 선생의 추모사가 진행됐다.

또 옥천사 옥샘합창단의 추모가, 판소리 적벽가 인간문화재 손순섭 선생, 김예빈 명장, 동편제 판소리 보존회 정향자 교수의 추모공연이 이어졌다.

백초월 스님은 1878년 2월 17일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성곡리 금산부락에서 출생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대표 용성 스님, 만해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중앙학림에 한국민단본부를 설치해 독립군 자금 모집을 주도하고, 항일신문인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비밀리에 발행했다. 1919년 11월 25일(음력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삼청동에 태극기를 게양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한편, 옥천사는 불교계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경남 대표적인 사찰로 백초월 스님이 수시로 왕래하며 독립자금을 모으고 직접 후학을 양성하며 젊은 스님들에게 항일의지를 심어주던 곳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도일 선사 6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교황청, 7월 1일 각황사서…전통조계종 7대 총무원장 취임식



(사)대한불교교황청과 도일 스님 문도회는 우각 도일 대선사 6주기 추모다례재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제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7월 1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대본찰 각황사에서 봉행된 이날 추모 다례재는 세계불교교황청 대법황 향덕 스님,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 도일문도회장 영운 스님의 헌화와 헌다에 이어 도일 선사 행장 소개, 인사말, 추모사, 격려사, 법어, 문도회 총재 사찰명판 전달, 총무원장 취임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일 스님 추모비 앞에서 봉행된 추모법회에서 세계불교 교황청장 능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일 선사를 비롯한 역대 조사 스님들에 대한 예를 다하고 나라와 사회에 최선을 다하는 바라밀다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일문도를 대표해 효천 스님은 “세월은 흘러도 변치않는 불교역사는 역대 조사스님들이 계셔서 우리 불교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다” 며 “제방의 여러 스님을 모시고 추모다례재를 모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인스님은 도일문도회 총재 향덕 스님에게 현판을 전달했다. 또 능인스님은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제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에게 임명장과 종단기를 전달했다.

운봉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행자로서 정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총무원장의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일문도회 총재 향덕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러 문도들의 정성을 모아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종도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만, 티베트 불교 스님 차별 '논란'

티베트 불교 출가자에 비자 제한
입국 스님 3년 사이 10배 줄기도
포교활동 지장…사찰 폐쇄 속출
대만 외교부, 法수 정 위해 노력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계 스님들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를 요구한 기자회견. 사진출처=대만 경제일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그러나 포교에 힘쓰는 대부분의 출가자들이 난민 신분인 까닭에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대만에서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스님들에 대해 비자발급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대만 전문 온라인 매거진 '타이완 인사이트'는 최근 일어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대륙을 제외하고 중화권에서 가장 많은 티베트 불교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대만 문화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종단에 소속된 사찰로만 약 473곳의 티베트 불교 센터가 있으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신자는 약 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급성장하는 교세에 맞춰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티베트인 스님이나 타 국적 스님들이 대만을 방문해 포교활동에 매진했으나 최근 입국하는 티베트 불교계 스님들의 수가 급감했다. 2019년 한 해 대만을 방문한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이 2천 명이었던데 반해 그 이듬해 2020년엔 400여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 2022년엔 불과 173명만이 대만을 방문했다.

'타이완 인사이트'는 "대만의 현행 비자법에서 무국적자는 단 2달만을 방문하는 갱신불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외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 난민신분으로 무국적자인 티베트인 스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티베트 난민이 아닌 인도나 네팔, 부탄 등 다른 티베트 불교문화권 국가의 국적을 가진 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비자문제로 인해 포교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센터의 경우 이로 인해 폐쇄를 결정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직결하여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측은 "스님으로 위장하여 대만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티베트인과 중국인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주중국 네팔영사관에서 발급된 여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현재 대만 외교부는 티베트 불교의 출가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비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난민여권을 소지한 티베트인 스님이나 인도와 부탄의 시민권을 가진 스님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더더욱 난민여권을 소지한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6일, 대만 불교계와 대만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센터 112개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티베트 불교 출가자에 대한 부당한 비자제한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만 티베트 불교계는 "타국가, 타종교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또 난민이 아닌 타국가의 스님들에게까지 난민들과 동일한 비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국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불교계와 협의하여 비자규정의 수정 혹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스님이 열심히 돈 버는 까닭은?

"스님은 삶, 직업과는 별개"
사업 경영하는 스님 화제


교계행사에서 법문을 하는 미즈타니 료기스님(우측). 사진출처=니프티 뉴스

계율 상에서도, 일반 사회인식에서도 출가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비판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신자들의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사찰차원에서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부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업을 떠나 당당하게 직업으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30일 일본의 'SPA! 뉴스', '니프티 뉴스' 등은 사업경영에 열심인 스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교토시에 거주하는 미즈타니 료기 스님은 현재 카페 바, 피부 관리실을 경영하고, 뮤지션이자 헤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스님은 "스님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인 제가 돈을 버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미즈타니 스님은 주변의 우려나 비판에 대해 "승려로서 포교활동과 강연은 물론 신도의 요청에 따른 법요도 봉행하고 있다"며 자신의 가장 정체성은 출가자임을 강조했다.

스님이 다양한 사업체를 경영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성장배경이 한몫했다. 어릴 적 스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2세에 출가한 미즈타니 스님은 출가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출가 후 본가인 사찰의 일을 도우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스님은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음악전문학교로 진학, 절을 나와 도쿄로 상경했다. 그러나 스님은 "음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배웠다"며 자신의 또 다른 이력이 생긴 계기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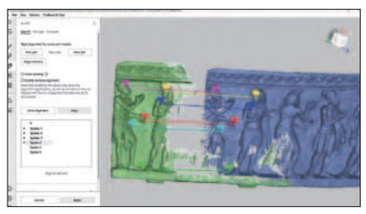
이후 21살에 소속종단인 정토진종의 종립대학인 류코쿠 대학에 진학, 불교교학을 공부하는데 매진했다. 동시에 재학중에 경력을 살려 헤어 메이크업을 개업했다. 미즈타니 스님은 "이 때가 가장 돈을 잘 벌었던 때다. 1200만엔(한화 약 2억원)까지 자산이 불어났다"면서 "그러나 리먼사태로 자산이 100분의 1로 사라진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남은 자산을 모아 재기에 성공, 카페와 바를 함께 하는 카페 바로 다시 일어섰다.

필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스님은 "자활을 위해 자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절에서 받고 있는 월보시금 6만엔(한화 약 55만원)은 전액 사찰이나 포교활동에 사용한다"고 사찰의 수익과 개인의 수익을 구분했다. 스님은 "삼보정재를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찰 밖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해야한다는 주의다.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활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출가자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스님은 "단 한 순간도 출가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다. 언제든지 나는 스님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사찰의 일. 출가자로서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육성하고 싶다는 발원이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독일 루르大,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3D 스캐닝 통한 유물 대중화 목표


3D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사진출처=DiGA

지난 6월 27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독일 루르대학의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 소식을 전했다.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이끄는 독일 루르대학의 제시 폰스 박사는 "간다라의 많은 불교 유물은 비전문가, 도굴꾼에 의해 발견됐다"면서"유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물의 고고학적 맥락에 대하 거의 알지 못해 간다라 유물 연구에 난관을 겪는다"고 말했다.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의 고고학 및 박물관 관리국과 협력하고 있다. 목표는 파키스탄의 착다라 박물관과 이탈리아 고고학 사절단이 소유한 1,791개의 간다라 유물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다.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2017년 11월에 파키스탄과 공식 프로젝트로 전환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중 COVID-19의 대 유행이 있었지만 카이버 박툰크화 정부 고고학 박물관국(KPDOAM)과 원격 디지털 캠페인을 운영해 2D 사진촬영으로 전체 컬렉션의 디지털화를 완료했다.

사진 작업이 끝난 유물은 3D 스캐닝을 통해 보존 및 복원의 손상 평가, 연구를 위한 시각적 기록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되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대중 스마트폰, 태블릿, VR안경을 통해 보고 창의적인 용도로도 활용 할 수 있다.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도메니코 팟세나와 안나 필리젠지의 〈간다라 조각품 목록 작성 용어집〉(2007)을 바탕으로 유물의 설명 및 관련 테이터를 표기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최근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팀은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와 협력하여 유산 사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고고학 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계획하고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보존, 분류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을 교육했다.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에서 받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박물관, 인도 초기불교 조각 특별전

파니기리 발굴 3점 최초 공개
11월 13일까지 메트로폴리탄


사자-마카라(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부처의 탄생이 조각된 토라나. 사진출처=아마라바티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인도 초기불교 조각 특별전을 개최해 화제다.

지난 6월 23일 인도 일간지 '텔랑가나 투데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인도 초기 불교 조각 특별전을 개최 소식을 전했다.

'나무와 뱀 - 인도의 초기 불교 예술 기원전 200년~기원후 400년'은 오는 7월 17일~11월 13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 수리야펫의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에서 발굴된 익슈바쿠 시대(3~4세기)의 아야카(조각장식을 한 기둥), 사자-마카라(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부처의 탄생이 조각된 토라나(탑문,塔門), 코끼리-마카라가 조각된 토라나 총 3점이 대중에 최초 공개된다.

텔랑가나주 문화관광부 '스리니바스 고드' 장관과 '산디프 쿠마르 술타니아' 수석비서관은 특별전 오프닝 세션으로 참석해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와 전시에 선정된 불교 조각품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술타니아 수석비서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리야펫 파니기리 불교 유적 발굴 현장을 방문해 대탑, 봉헌탑, 강당, 승원, 사원 등의 구조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시품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전시가 끝난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인도 초기 불교조각전'은 2024년 12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관련 공지는 7월 중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무더위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오세요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불교 프로그램 '다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되는 7월, 박물관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더위를 이겨내보면 어떨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7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특별전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을 비롯해 상설전시관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7월에는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 설명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돼 눈길을 끈다.

서화관 불교회화실에는 '조선 왕실의 바람을 듣다: 16세기와 19세기 왕실발원 불화' (7월 26일 오후 7시)라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각공예관에는 불교조각실의 '백제의 불교조각' (7월 5일 오후 7시)이 진행됐으며, 금속공예실은 '부처의 음성: 불교 범음구의 세계' (7월 12일 오후 7시)라는 주제가 준비돼 있어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세계문화관 인도 · 동남아실에서는 '꽃줄을 든 동자: 로마에서 서역까지' (7월 19일 오후 7시)라는 주제가 준비돼 있다. 이곳에서는 로마 시대 석관을 장식하는 부조에서 유래한 2-3세기 인도 간다라 스투파 장식 부조에 대한

불교 범음구, 반가사유상 등
문화유산 소개 프로그램 눈길
전시 이해 높이는 주제로 구성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시그니쳐 상설 전시관인 사유의 방에서는 국보 '반가사유상' (78 · 83호)들의 소개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7월 26일 오후 6시)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시실에서는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의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매주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신라와 가야 사람들의 장송의례에 사용되어 고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내세관을 담고 있는 상형 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를 만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시그니쳐 전시실인 사유의 방. 7월 큐레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달 개관한 세계문화관 그리스 · 로마실에서도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그리스 도기의 종류와 특징' (7월 12일 오후 6시)이라는 주제로 전시 중인 그리스의 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선사고대관 구석기실에서는 '구석기인들의 삶: 구석기인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7월 12일 오후 6시)라는 주제로 구석기 주거 형태에 관한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신라실의 '신라 금관의 제작 기법' (7월 5일 오후 6시)과 백제실의 '고대 금속 선상감의 제작공정과 그 해석' (7월 19일 오후 7시)에서는 고대 금속 유물의 제작 방법에 대하여 보존과학 분야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중근세관 조선2실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7월 26일 오후 7시), 기증관 기증1실의 '책으로 만나는 박물관' (7월 19일 오후 6시) 등의 주제가 준비돼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 공간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과 PDF 형태로 제공한다.

불교문화사업, 대구 · 경북으로 모인다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9월 14~17일 대구 엑스코서
'열암곡 마애부처님' 전시 등
문화기획전 프로그램들 다채
7월 21일까지 참가업체 모집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전경.

불교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2023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 서관 1홀에서 '대구 · 경북의 불교문화 산업'을 주제로 개최된다.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공식 홈페이지(bexpodg.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특별전'이 주제전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신라시대에 찬란히 꽃피운 불교문화의 중심지 대구 · 경북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문화사업전, 기획특별전, 체험 ·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특별전은 지난 4월 개최된 '2023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사업'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 '입불(入佛)운동'의 단초역할을 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전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아트워크를 감상할 수 있다. 또 관람객들이 사업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발원문 기원나무'에 직접 매다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구 · 경북지역의 전통문화와 불교사상을 담은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사업전도 이번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의 백미다. 섬유 · 금속 · 도자 등을 활용한 불교공예전과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불교예술전, 건축 · 식품 · 차 · 의복 · 문화상품 등을 볼 수 있는 불교문화전은 관람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과 감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구 무형문화제전수교육관 소속 장인들(조각장 · 소목장 · 창호장 등)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장인의 공방전'과 대구 · 경북지역 문화콘텐츠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지자체 특별전'도 관람객의 기대를 모은다.

한편, 2023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는 불교신문과 BBS불교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 경상북도 · 대구시 등이 후원한다. 이번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참가를 원하는 업체 및 사찰은 홈페이지(bexpodg.kr)에서 참가신청 자료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9월 3일까지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문화사업단, 전통사찰순례 2차 회향

7월 3일 증서 수여식… 총 36명 회향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7월 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한국전통사찰순례 2차 회향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회향 증서는 문화사업단에서 발간한 전통사찰 순례 책자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하고, 해당 사찰의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총 36명의 완주자 중 17명이 수여식에 참석했다. 완주자들에게는 회향증서와 템플스테이 체험권, 기념품 등이 전달됐다.

회향 증서 수여자인 김세연 씨는 "힘든 마음에 사찰을 찾았는데 처음 보는 거사께서 관음성지 순례를 제의"했으며 "8개월간의 기도정진을 하면서 33관음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 벅찬 순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민 씨 가족은 가족이 모두 순례에 참여하고 원만회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가족들과 등산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찰과 친해졌다. 이번 33관음성지순례도 가족들과 함께 다녔고, 사찰마다 108배를 했다. 아이에게 부모가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을 대신해 회향증서를 수여한 템플스테이 홍보관 부관장 영조 스님은 "순례 회향의 길이 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귀한 시간을 내서 33관음성지를 끝까지 순례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10돌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기념연주회

7월 14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서

불음으로 포교하는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연주회를 개최한다.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단장 윤은정)은 7월 14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10주년 기념연주회'를 개최한다.

기념연주회 1부에서는 둥근소리합창단이 '연꽃법당', '청산은 나를 보고', '바라밀', '복의 씨앗을 뿌려'를 선보이고, 소프라노 황상미가 초청공연으로 '해조음소리', '거위의 꿈', '오! 솔레미오'를 부른다.

2부에서는 둥근소리합창단이 '꿈을 꾼다', '바람의 노래', '바램'을 선보이고, 성악앙상블 퀸스틀러가 초청공연으로 '마중', '향수', '라라라'를 부른다.

마지막 3부에서는 둥근소리합창단이 '보라빛 엽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보약같은 친구', '당신이 좋아'를 선보이고, 특별무대로 3대가 함께하는 가족합창단이 '비둘기집', '사랑으로'를 부른다. 청량사 회주 지현 스님은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이 형체 없이 불어오는 뜨거운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처럼 나의 마음과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부처님의 가피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며 "10년의 시간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이제 세상 밖으로 자라려하는 우리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불교음악원, 신작 찬불가 작사부문 공모

오는 7월 24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찬불가 발굴과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신작 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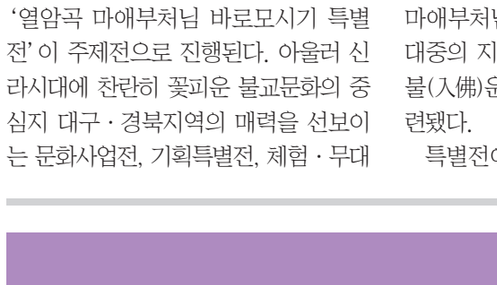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제10회 신작 찬불가 공모는 작사 부문과 작곡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작사 부문은 오는 7월 24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받는다.

응시자들은 의식 · 생활 · 어린이찬불가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노랫말은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으며 한문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과 불교사상 및 가르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접수는 우체국 등기나 이메일(cobm010@gmail.com)을 통해 받으며, 접수된 작품들은 대중성 · 충실성 ·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조계종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5~7/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스님	이층버스	6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스님	불광출판사
2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스님	정토출판	7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자우 스님	사유수
3	육조단경	육조 혜능	효림	8	인생 수업(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법륜 스님	휴
4	무비 스님의 천수	무비 스님	조계종출판사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5	붓다의 말씀	냐나틸로카	고요한소리	10	보리도차제광론2	쫑카파	나란다

책세상

MZ세대도 쉽게 읽을 '금강경·법화경·화엄경' 소개서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김성옥 지음

불광출판사/ 1만6000원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불광출판사/ 1만6000원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박보람 지음

불광출판사/ 1만6000원

불광출판사 '인문학 불교경전' 시리즈

대중적 '대승삼부경' 개론으로 시작해

필자들 일상언어로 쉽게 이해토록 집필

향후 20권 목표… "불교 문턱 낮출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 중 하나가 '어려움'이다. 산 속에서 면벽 수행해서 도를 이뤄야 할 것 같고, 순 한문인 경전은 읽는 것조차 쉽지 않다. 특히, 한문을 배우지 않은 MZ세대의 경우 불교 경전에 대한 문턱은 높기만 하다. 그래도 불교 경전에 담긴 금구(金句)들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접해볼 만하다.

불교 경전을 읽고 싶은데 어려워 선뜻 손이 가지 않다면 불광출판사에서 첫 선을 보인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리즈는 불교 경전의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내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경전 소개서로, 가장 먼저 대승삼부경인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선보였다. 불교 경전을 읽어 보고 싶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몰랐던 입문 독자, 경전을 읽어 보긴 했는데 영 낯설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문학 독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 〈금강경〉

시리즈의 시작은 〈금강경〉으로 김성옥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부교수가 집필했다. 강단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저자는 "누군가 애써 마음먹은 불교 공부가 낯선 개념과 용어들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다.

저자는 마그리트의 파이프 그림, 무지개의 스펙트럼과 같은 친숙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수수께끼 같은 경전 속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소개한다. 글을 차분히 읽어나가면 알쏭달쏭하던 〈금강경〉의 뜻이 와닿는다.

모든 형상과 이름의 관념을 부수고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말하는 〈금강경〉의 돌직구는 '부처의 법'이라는 관념마저 버리라고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설하신 단 하나뿐인 진리라고 스스로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불교의 가르침, 공(空) 사상을 〈금강경〉은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진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편집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하기에 〈금강경〉은 우리에게 "추구하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고.

붓다이자 우리 이야기 〈법화경〉

〈법화경〉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교화하며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보살의 실천, 즉 보살행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붓다에 대해 통찰한다. 나아가 보살행을 통해 또한 붓다의 가능성을 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혀 주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법화경〉 전문가' 하영수 금강대 불교인문학부 조교수는 이 경전에 담긴 사상을 탐구하며 동시에 그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그 옛날, 붓다는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전했다. 중생의 상황에 맞추어 설한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하고, 그 방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진실'이다. 그렇다면 〈법화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영수 교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되묻는 질문, 바로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경전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 핵심 요의는 결국 누구나 평등하게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조건이 있다. 바로 '끊임없는 보살행'이 그것이다.

결국 〈법화경〉은 무명으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잊은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며,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전한다.

"〈법화경〉은 한 마디로 붓다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이며, 그 말은 당신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중에서)

부처님으로 사는 법 〈화엄경〉

'나'의 참모습을 무아(無我)와 연기(緣起)로 바르게 봄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는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화엄경〉은 그렇게 찾아낸 '나'의 참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왜, 어떻게 '나'가 부처님이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화엄경〉은 화엄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누구든 의지해야 할 수행의 지침이자 삶의 근거로 삼는 경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엄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축에 속하는 만큼 원전을 접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공학을 전공하다 불교학으로 관심사를 옮겨 화엄 사상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을 가르치게 된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암호 같기만 한 〈화엄경〉의 속뜻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 낸다.

"〈화엄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함이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부처님임을 알고서 부처님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중에서)

결국 〈화엄경〉은 '나' 그대로 온전한 부처님임을 깨달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나' 안에 숨겨져 있는 부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 지혜가 〈화엄경〉에 있다는 게 저자의 말이다.

이번 시리즈에 대해 류지호 불광출판사 대표는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일상 언어로 시리즈를 제작했다"면서 "아함경, 유마경 등 앞으로 20권을 목표로 시리즈 발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옥 교수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부교수. 뒤늦게 불교 공부에 마음을 둔 늦깎이로, 2011년 동국대에서 '다르마끼르띠의 자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기인식에 관한 유식학파와 중관학파의 논쟁', '자심분별에 대한 원효의 입장' 등의 논문을 썼고, 최근에는 오늘의 문제를 불교를 통해 바라보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영수 교수

금강대 불교인문학부 조교수. 일본 고마자와(駒澤)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금강대에서 〈법화경〉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분야 역시 〈법화경〉이다. 경전 본연의 사상을 탐구하면서, 한편으로 이 경전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보람 교수

충북대 철학과 부교수. 〈화엄경〉과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화엄종의 사상이 주된 공부 분야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주축을 이루는 의상 스님과 그 법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의 '나'가 조금도 모자람 없는 여래라는 여래출현설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결국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지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체 없음' '비어 있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공'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경전 전체에서 이처럼 공 사상이 넘쳐흐릅니다. –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129쪽

불교는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궁극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해탈(解脫)'이나 '열반(涅槃)'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붓다는 다름 아닌 그러한 자유를 실현한 존재입니다. 특히 〈법화경〉은 붓다가 얻은 대자유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25쪽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나 부족한 '나'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불교와 달리 〈화엄경〉은 '나'가 그대로 온전한 부처님임을 깨달음으로써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59~60쪽



(김성옥 지음, 16,000원)
우리 안의 굳은 편견과 어리석음을 부수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

02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16,000원)
우리의 이야기가 될 붓다의 이야기

(박보람 지음, 16,000원)
모든 존재가 자신의 참모습대로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해
주요 경전의 핵심 내용만 쏙쏙!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판형
부담 없이 읽어 보는 나의 첫 불교 경전 입문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동아시아 삼국 불교의례 율조 분석





한 · 중 불교의례와 범패
한 · 일 불교의례와 쇼묘
윤소희 지음 / 민속원 / 5만5000원 · 5만8000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에서 재(齋)를 올릴 때 사용하는 불교음악 범패(梵唄). 인도에서 건너왔다는 뜻으로 인도 소리나 범음(梵音)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어산(魚山)'이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어산은 중국 삼국시대 조조의 아들 조식(192~232)에 의해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지금의 산둥성에 있는 어산에서 놀다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게송에 곡을 붙인 것이 범패의 시원이기 때문이다.

범패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비롯해 수륙재, 생전예수재 등 다양한 재에서 쓰인다. 소리로는 요령을 흔들며 법주가 축원을 낭송하는 안채비와 홋소리, 짓소리 등이 나뉘고, 무용에 해당하는 작법은 고깔을 쓰고 모란꽃을 쥔 나비춤과 양손에 큰 바라를 들고 추는 바라춤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같은 동아시아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범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2022년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대상으로 선정된 〈세계 불교음악 순례〉의 저자 윤소희 교수는 이번에 펴낸 두 책에서 각국의 불교의례 율조를 분석해 한국전통음악의 뿌리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시도에 나섰다.

먼저 〈한 · 중 불교의례와 범패〉 1부에서는 석가모니의 음성에서 비롯된 범음, 중국 글자로 음사한 범자와 한문으로 의역된 범패 가사에 초점을 맞춰 재분류했다. 각 악곡의 율조들을 세세하게 분석한 수백 개의 예보들을 제시한 뒤 그 세포조직과 몸체를 이루는 뼈대를 도표로 나타냈다. 이로써 한 음에서 시작돼 장대한 범패 악곡이 되는 과정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2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조명했다. 장보고가 이끌던 산동적산원 신라인의 불교의례와 음악, 대만의 범패와 한국 범패의 비교, 나아가 현재의 한글 반야심경과 조석예불문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내용을 현지조사 자료에 기반을 두고 고찰했다. 이는 불교음악을 넘어 한국문화의 체질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 · 일 불교의례와 쇼묘〉에서 '쇼묘(聲明)'는 범패와 달리 한국인에게는 많이 낯선 용어다. 중국과 한국이 불교의례 율조를 범패라고 칭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에선 쇼묘라고 표현한다. 당나라 청익승들의 귀국 이후 일본의 불교의례가 밀교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소리·무용 등 종합예술로
재(齋)에 쓰이는 불교음악
中 범패 · 日 쇼묘로 표현
한국불교 의례 차이 조명



지난 2021년 6월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 코로나19 종식 기원 영산재에서 스님들이 범패의 한 요소인 바라춤을 선보이고 있다.

제1부에서는 백제불교를 기반으로 한 일본불교의 시작과 전개 과정, 나아가 한국과 다른 일본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중국의 제사음악에 힘을 쏟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유교제례음악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교음악이 궁중아악이었다.

저자는 한국에서 파계승을 놀리며 춤추는 산대극이 본래는 백제의 미마지가 일본에 전해준 사찰교훈극이었음을 나라의 고후쿠지 〈교훈초〉를 통해 알게 됐다. 책은 도다이지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고찰, 오사카의 시텐노지 등 사찰 곳곳의 의례와 신행이 한국불교의 옛 모습임을 알려준다.

"우리네 본래 모습을 중국을 통해 알게 된 것이 40%라면 일본은 60%"라는 게 저자의 설명. 당대의 교파불교 전통을 유지한 일본은 각 종파마다 의례와 신행, 쇼묘 법도가 다르고 오음 · 당음 · 한음 등 관습에 따라 발음도 다르다. 그렇기에 이 책은 한글과 한자, 일본음을 3중으로 표기해가며 서술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일본불교 쇼묘의 원류를 짚는다. 그간 학계에서는 엔닌 스님이 당나라에서 범패를 배워와 쇼묘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해왔다. 저자는 그것이 산동적산원 신라인의 불교의식과 범패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구체적 사료를 통해 제시한다. 반대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불교의례와 신행이 한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역전입 현상도 설명한다. 그간 일본불교 연구 논문과 서적은 많았지만 실질적인 신행과 의례, 쇼묘를 연구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책은 일본의 불교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저자 윤소희는?

부산대 한국음악학과서 작곡을 전공하고, 한양대 음악대학서 음악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덕대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대우교수로서 한국전통음악을 강의하면서 한국불교음악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원상 특별상, 반야학술상 저술상, 묘엄불교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내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작곡과 음반 발매 등 폭넓게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문화와 음악〉 〈문명과 음악〉 〈범패의 역사와 지역별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한 · 중 불교음악 연구〉 〈영남범패 대담집(공저) 등이, 논문으로 〈대만 불교 의식음악 연구〉 〈티벳 참무를 통해 본 처용무와 영산재〉 〈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 〈불교음악 연구의 좌표와 지평〉 〈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 · 중 · 일 율조비교〉 외 다수가 있다.

새로 나온 책

만남 · 사랑 알아가는 구도 여정



눈부처
이갑숙 지음
부크크 / 1만6300원

제2회 법계문학상 수상자인 이갑숙 작가(법명 덕산)가 후속작 〈눈부처〉를 발표했다.

〈눈부처〉는 작가의 전작인 〈꺼지기 쉬운 빛〉의 후속 장편 소설이다. 작중 화자인 지서가 사후 세계를 다루는 〈티베트 사자의 서〉의 안내로 죽음 여행을 하면서 '꺼지기 쉬운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렸다.

소설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인정 욕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삶의 길목에서 다가온 어떤 알아차림, 그 자성의 빛에 관한 어느 한 늙은이의 자전적 서사다. 다른 하나는 어린왕자와 선재동자에게 길을 물어가며 지서를 둘러싼 기막힌 시절 인연의 진정한 만남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작중 화자의 구도적 여정이다. 죽음 여행의 끝에 이르러 지서는 어린왕자의 '길들임'과 선재동자의 '보현행'이 세상을 들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그윽하게 만드는 진정한 만남과 사랑임을 알아차린다.

이갑숙 작가는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한국해양대학교 겸임 · 초빙교수,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청계사 '마음 따라 향기 법문 선원 순례단' 단원으로서 8여 년 동안 국내외 108군데 선원과 사찰을 찾아다녔다. 2017년 법계 문학상 공모에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당선됐다.

임은호 기자

고은의 세계를 걷다



허무의 꽃
이경철 / 동쪽나라 / 1만8000원

이경철 문학평론가가 고은 시인의 시와 삶과 시대를 둘러본 〈허무의 꽃-고은의 세계를 걷다〉를 펴냈다. 고은 시인의 구순을 맞아 펴낸 이번 책은 고은 시인의 시를 삶과 시대와 아울러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있다.

책은 '시대와 영원을 동시에 껴안는 철부지 시인' '민족시인에서 세계시인으로서의 벅찬 삶과 시' '벅찬 감동으로 삼천대천세계를 감응시키는 시' 등 5개 주제 60여 편으로 구성됐다.

일간지 문학 담당기자와 문예지 편집자 등으로 고은 시인과 30여 년간 만나온 저자는 이런 친교와 실감을 바탕으로 시를 고르고 감성하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고은 시인의 시가 독자들에게 감동의 실감으로 다가가게 한다.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2010년 〈시와 시학〉에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21세기 시조 창작과 비평의 현장〉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 등이 있으며, 시집 〈그리움 베리에이션〉 등을 펴냈다. 현대불교문학상, 질마재문학상, 동국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스님이 바로 읽어주는 금강경



진옥 스님 설법집 금강경
진옥 지음
석천사 / 비매품

불교사상의 진수이자 대승의 공사상이 오롯이 담겨 있는 〈금강경〉.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고 관련 해설서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정작 그 뜻에 가닿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문식 문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걸림돌이라면 용어에 대한 잘못된 번역과 해설이 만연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에서 '불교로 세상보기' 코너를 이어오고 있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잘못된 번역과 해설을 바로잡아 〈설법집 금강경〉을 책으로 펴냈다. 〈설법집 금강경〉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명을 밝히고'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이 가감 없이 정리됐다. 정준영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윤금선 작가가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장기상 물리학 박사가 주석을 도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이기도 한 진옥 스님은 불자들에게 금강경의 본뜻을 이해시키고자 여수 석천사와 서울 마하연 공부방에서 금강경 강의를 계속해왔다. 1975년 출가, 1999년 달라이라마에게서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받고 정진 중이다.

진옥 스님은 〈설법집 금강경〉을 비매품으로 제작, 1차로 1만 권을 인쇄해 전남지역 불자들과 시 · 청취자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여수 석천사로 문의하면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061)662-1607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25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 1



▶한줄 요약
아디카야의 검을 찾아나선 이 기자 일행은 마침내 검이 있다는 전설의 장소인 아이슈 무쿠암에 도착한다. 하지만 아이슈 무크암의 모습은 이 기자 일행이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드디어 아이슈 무쿠암…전설에 다가가다

노트 속의 잔영이 너무 강열했던 탓일까?

화사한 햇살이 멍석만큼 뜰 한쪽에 떨어진 것이 보였다. 무성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비고 들어선 햇살. 아아, 햇살 속에 노트에서 보았던 난타가 서 있었다.

유독 그가 서 있는 곳만이 따스해 보였다. 나는 그곳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왜 이래? 왜 이러지? 분명히 잠을 깨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았나?

부엌에서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러보았다.

-왜 그러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어머니군요!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러니?

-저분에게 가야겠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햇살 속에 서 있는 난타를 바라보았다.

-누구라고? 아무도 없잖니?

그러고 보니 아무도 거기 없었다. 그가 서 있던 곳에 햇살만이 가득했다.

-저 햇살 속으로 갔으면 해요.

어머니가 웃으며 햇살이 떨어진 곳에 데려다주었다. 이외로 햇볕이 따가웠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에 부셨다.

눈을 뜨기가 무섭게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이것도 꿈인가? 문득 이석원의 모습이 눈앞에 달라붙었다. 그도 여기로 왔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왔듯이 그렇게 왔을 터인데….

밖엔 꿈속과는 달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고색창연한 무성한 숲을 때리며 멈출 줄을 몰랐다. 황갈색의 덤불이 깔린 계곡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감나무 밑에 서서 어머니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뜰 한 쪽에 있는 대추나무가 봄이 되었는데도 싹이 트지 않았다.

-다른 생물들은 어느새 꽃들을 피우기도 하는데 아직 잎도 열 생각도 안 하네요?

-모든 것은 때라는 게 있는 법이란다.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비가 오는 걸 보니 아직은 때가 아닌가?

이상스런 불길함이 스멀스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챘다. 하필 무쿠암으로 떠나려는 날 비가 오다니. 비안개에 젖은 선정이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저것은 원숭이 울음소리인가?

숲 너머로 비에 젖은 원숭이들이 불결한 털을 털어 대며 우는 것이 분명했다. 원숭이들이 느낌을 증명하듯 이리저리 건너뛰는 모습이 보였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콧속으로 흘러들었다. 그건 분명 비에 젖은 숲 냄새였다.

잠시 후 비가 서서히 그쳤다. 햇살이 검은 구름장을 헤치고 얼굴을 내밀었다. 빗소리가 사라져 버린 주위가 섬뜩했다. 무한한 공간 속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점차 투명한 빛이 산등성이로 쏟아졌다. 밀림도 비로 인해 생기를 찾았다. 검게 그을린 빛이 물러가자 맑고 투명한 빛발이 되었다. 수묵화처럼 보이던 산골짜기가 뚜렷이 떠올라 마치 한 폭의 미세화를 보는 것 같다.

비가 온 뒤의 신선한 공기가 콧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산정으로부터 내려온 바람이 호숫가의 풀잎들의 머리를 휘돌았다. 색색으로 뒤엉킨 산정이 어느 사이에 어떤 범치 못할 무늬로 수놓아져 신령스럽다.

스리나가르여, 스리나가르여2

-아이슈 무쿠암까지 가는 차를 찾아야겠습니다.

자빠디를 씹으며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세 사람이 그곳까지 가는 차를 찾기 시작했다. 없었다.

-전에는 지프를 전세 내었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프를 전세 내기로 했다. 숙소 주인 여자가 수염이 시커멓게 난 인도인 한 사람을 데려왔다. 차 주인이라고 했다.

-왜 그곳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말해야 하오?

차 주인의 말에 오오스마 기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얼마면 되겠소?

-한 60킬로쯤 되니 3,000루피는 줘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포장도 안 된 숲길을 지프는 계속해서 달렸다. 나는 주위의 풍광을 살피며 흔들렸다. 문득 노트에서 만난 난타와 손타라의 모습이 나름대로 그려지며 떠올랐다. 햇살이 화사하다. 스쳐 가는 숲 더미 사이로 비비고 들어선 햇살이 어느 한순간 나를 안았다.

오오스마 기자가 잡다한 생각을 떨치고 한숨 자야겠다는 듯이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한동안 계곡이 이어졌다.

얼마나 갔을까. 구렁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사방을 둘러보던 오오스마의 시선이 한곳에 붙박였다.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모세의 돌입니다.

느닷없이 오오스마가 손가락을 창날처럼 세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의 어딘가를 가리켰다.

너무 멀어서인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저 뾰족한 것인가?

-잘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어쨌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들 부르지요.

-그럼 모세도…?

모세도 여기 왔느냐는 어투로 내가 묻자,

-여기 왔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하하하고 송 서화가가 웃었다.

-이 나라도 어느 나라와 비슷하네. 유명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기는 게. 세종대왕도 제 나라 사람이고 강감찬도 제 나라 사람이고 하하하….

문제의 무쿠암은 비즈하라로부터 꼭 13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이슈 무쿠암입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평지에 둥그렇게 솟아오른 건축물을 가리켰다. 큰 바위 같았다. 큰 바위가 불쑥 솟아올랐다. 푸른 이끼도 아니고 잿빛 이끼가 덮인 바위였다. 바위 주위는 지지한 잡풀이 둘러쌌다. 희끄무레하다고 해야 할지 검으티티하다고 해야 할지 바위는 어쩐지 음산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주위가 더 황량해 보인다. 분명 버려진 벌판이었다.

저곳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소문이 날 정도라면 최소한도 철조망이라도 쳐져 있어야 할 터인데 철조망은커녕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성지는 그대로 방치된 것이 분명했다. 속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헛소문이었나?

-바위 아닙니까?



송 서화가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저 바위 뒤쪽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동굴 안에?

내가 물었다.

-맞습니다.

차가 바위 앞에 멎었다.

-전에 왔을 땐 군인들이 보초를 서 있었는데….

오오스마가 고개를 갸웃대며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그가 바라보는 곳에 군인들이 머물다 간 듯한 잔재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것이 보였다. 폐기된 군용 천막들, 녹슨 철재들, 부서진 의자와 침대들…. 그 어디쯤 폭삭 내려앉은 판잣집이 한 채 보였다.

-잠시 기다려주실래요? 도로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 요금은 적당하게 드릴게요.

차에서 내리면서 내가 기사에게 말했다.

-알았수다.

별사람들도 다 있다는 듯이 말이 없던 기사가 대답했다. 틈만 나면 사진을 찍어대는 송 서화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바위 뒤로 돌아갔다. 여전히 철조망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군인이 아니라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바위 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동굴 입구가 보였다. 자연적으로 뚫린 것인지 인위적으로 뚫은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 이석원이 문득 생각났다. 그가 여기로 왔다면 어디쯤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시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전엔 저 판잣집에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도 살지 않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말하며 오오스마 기자가 폭삭 무너진 판잣집을 바라보다가 먼저 동굴 앞으로 다가들었다.

-다 철수한 모양입니다.

동굴 입구까지 완전히 다가들면서 그럴 줄 알았다는 투로 오오스마 기자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송 서화가와 내가 오오스마 기자 가까이 다가갔다.

-왜 이곳을 무쿠암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쉴 장소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말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송 서화가가 물었다.

-맞습니다. 무쿠암 앞에 아이슈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슈 무쿠암?

내가 뇌까렸다.

-차에서도 말했지만, 이곳은 이번 사건이 나기 전에 예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동안 이곳에서 칩거하며 명상했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분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증거나 기록은 사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요?

송 서화가가 눈을 빛내며 되물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옥좌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솔로몬의 옥좌?

송 서화가가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수 세기의 비바람을 견뎌내고도 그 글귀는 지워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어디에 솔로몬의 옥좌가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언자인 예수이니라' 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술탄통치 동안 살았던 역사학자 몰라 나디리(mullah nadiri)라는 사람이 카슈미르에 관한 역사의 책에서 그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뒤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으로 왔으며 자신이 예언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과 미덕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이 곧 메시아이며 밤낮으로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카슈미르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힌두족들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했으나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골짜기에서 일생을 보냈으며 죽은 뒤 모하라 안지마라에 묻혔다는 겁니다.〈계속〉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⑬ 반야용선



▶한줄 요약
불자들은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의미에 익숙하다. 사바세계가 괴로움의 바다라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충만한 법당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배에 해당한다.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피안에 도달할 수 있으니 서방정토는 사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고해 건너 피안 향하는 '구원의 배'



조선시대에 조성된 신륵사 극락전 외벽의 반야용선도. ©성보문화재연구원

고해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옛사람들은 무덤 속에 배를 그리거나 새겼다. 죽은 이의 영혼을 배에 실어 사후세계로 무사히 데려가기를 바라는 주술적 염원이다. 동서고금 없이 배는 미지의 이상세계를 향한 이미지와 짝을 이루어왔다. 수평선 너머 망망대해로 떠나는 배가 인간이 꿈꾸는 피안의 세계로 데려다줄 이동 수단이라 여긴 것이다.

마을에서는 배가 나아가는 모습의 행주형(行舟形) 지세를 최고의 입지로 꼽는다. 이는 만선(滿船)이 드나드는 풍요로운 부촌임을 뜻하고, 홍수에도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원의 배'가 되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주형 마을에는 어김없이 홍수설화가 전승된다. 그런데 풍요와 구원을 보장받으려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돛대를 잘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솟대를 세워 돛대로 삼고, 꼭대기에 오리를 앉혔다. 오리는 물갈퀴와 다리와 날개가 있어 물 · 땅 · 하늘의 삼계에 자유자재하다고 본 것이다.

불교에서도 현실과 이상세계를 연결하는 배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다. 번뇌에 찬 이승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정토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다. 그 세계는 반야의 지혜에 의지해 건널 수 있으며,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이끈다고 여겨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는 관념이 생겨난 것이다.

고려 말 〈미륵하생경변상도〉에 그려진 우리나라의 초기 반야용선 도상을 보면, 왕생자(往生者)만 승선한 모습이었다. 그 뒤 이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아미타불이 등장하고, 점차 관음보살 · 지장보살이 함께하는 아미타삼존, 정토의 인도자 인로왕보살이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반야용선은 인로왕보살이 선두에서 이끌고 지장보살이 선미를 지키는 가운데, 아미타삼존이 중생과 함께하며 거센 파도를 헤쳐 가는 모습으로 즐겨 표현된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반야의 배 빨리 타게 하소서,
고통의 바다 빨리 건너게 하소서.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 〈천수경〉 '십원문(十願文)'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루바삐 탐진치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의 세계로 건너가길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다.

또한 불자들은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의미에 익숙하다. 사바세계가 괴로움의 바다[苦海]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법당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배에 해당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피안에 도달할 수 있으니, 서방정토는 사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찰건축에도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법당 전면의 기둥머리에 조각한 커다란 용두(龍頭)는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자, 법당이 반야용선임을 나타내는 뜻이다. 구례 천은사 법당처럼 뒤쪽에도 용미(龍尾)를 조성해 이를 강조하는가 하면, 법당 외벽에 용선도를 그림으로써 법당이 거대한 반야용선임을 더욱 실감케 한다.

반야용선에 매단 나룻배

그림으로 표현한 반야용선도는, 본에 따라 그리는 여느 불화와 달리 다채로운 모습을 지녔다.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민속적 성격이 짙은 그림이기에 화사(畫師)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상의 기본 의미와 구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도상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을 준다.

그 가운데 제천 신륵사 외벽의 반야용선도는 여러모로 인상적이다. 서방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의 여정과 함께, 극적 요소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는 파도가 더욱 거세지며 네 발을 드러낸 채 험한 바닷길을 내달리는 용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배의 앞뒤와 중앙의 인로왕보살 · 관음보살 · 대세지보살은 지금까지 합장했던 두 손을 풀고, 열심히 노를 젓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의 백미는 용선과 연결된 작은 나룻배이다. 용선은 이미 가득 찼기에, 타지 못한 이들을 빽빽이 태운 작은 배를 밧줄로 매단 채 함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림 앞에 선 이들은 중생을 남김없이 구하려는 긴박감과 함께, 정토를 향한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느꼈을 법하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반전이 숨어 있다. 용선에 탄 이들 대부분이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반야용선이 단순한 '구원의 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용선을 탄 대중이 가는 곳은 깨달음의 세계이기에, 수행 없이 극락왕생만 바라는 중생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림으로 새겨야 할 듯하다.



무속 넋굿에서 반야용선을 태우는 모습.

무덤 속 배 그리고 새긴 옛 사람들
사후세계 무사히 가는 염원 담아
천도재서 나타난 반야용선 의식은
서방정토 도달했음 뚜렷히 보여줘

이처럼 반야용선에 줄을 매달아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구제의 모티브는 설화적 연계 고리를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민간에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악착보살' 설화가 생겨났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마을에 반야용선이 도착했는데 한 보살이 그곳에 다다라보니 용선이 막 떠나가고 있었다. 이에 안타까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배에서 밧줄을 던져주어 그 줄을 붙잡고 악착같이 극락정토로 향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름만큼 간절한 사연을 지닌 설화 속의 악착보살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운문사 비로전 천장에는 나무로 만든 용선이 있는데, 배에서 내려온 밧줄에 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을 조각해 두었다. 그녀가 바로 악착보살로, 줄을 놓치면 망망대해에 빠지게 되니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않는 지극한 구도심을 일깨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봉천동 길상사 법당에도 악착보살이 있다. 똑같이 천장의 반야용선에서 내려온 줄을 잡고 매달렸는데, 긴박한 당시 상황을 말해주듯 한쪽 발에만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반야용선과 악착보살'이 세트화되어 간절한 수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극락왕생을 비는 불자들의 염불에 반야용선이 즐겨 등장하듯이, 천도재(薦度齋)에서는 입체적으로 구상화한 반야용선을 만날 수 있다. 대나무 · 한지 · 지화 등으로 간단한 반야용선을 만들어 봉송 때 태우기도 하고, 영단의 장엄물로 크고 작은 반야용선을 만들어두기도 한다. 모두 망자가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왕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조물이다.

서울 흥천사 법당에는 영단 벽에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를 걸고, 그 앞에 등으로 커다란 반야용선을 조성하여 불을 밝혀두었다. 용선의 선실에는 연화화생(蓮華化生) 그림을 장식하고 앞쪽에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영가의 환희로운 왕생을 가시화하였다. 부산 삼광사 지장전에는 법당 천장에 레일을 설치해두고, 봉송 때 반야용선을 동에서 서로 이동시켜 서방정토에 도달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반야용선을 탄 사람들

밀양 광제사에서 반야용선을 타고 즐거워하는 신도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들은 생전예수재에 동참한 신도들로, 마지막 회향 때 수레를 개조하여 만든 커다란 반야용선에 탄 채 앞뒤로 염불하는 스님들과 함께 흥겹게 탑을 돌았다. 사찰에서는 이를 '용선작법(龍船作法)'이라 부른다. 큼지막한 용머리로 장식한 배의 앞쪽은 인로왕보살이 이끌고 뒤쪽은 지장보살이 따르며 네댓 명씩 용선을 타고 돌면, 나머지 신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처럼 망자를 위한 천도재만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예수재에서도 사찰마다 반야용선을 조성하여 법당 안팎에 장엄한다. 예수재 또한 살아있을 때 미리 닦아 극락왕생을 준비하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제사처럼 동참재자를 반야용선에 직접 태우는 일련의 예수재가 전승되고 있어 흥미롭다. 망자를 위한 천도재에서 반야용선에 고인의 위패를 실으니, 산 자를 위한 예수재에서는 동참재자가 직접 타는 것이 합당하다.

1980년대 거제도 어느 사찰의 예수재를 기록한 김희균의 글에서도 같은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당시 노인들은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순탄하며 이생에 다시 온다"며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고, '저승에 다녀오는 형식'으로 가마에 한 사람씩 타고 마당을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한다. 이때의 가마는 형태와 무관하게 반야용선을 뜻하니, 마당을 돌아 저승에 다녀옴으로써 극락으로 가는 길을 미리 닦은 셈이다.

그런데 광제사에서는 설판재자 · 중판재자의 경우 화려하게 장엄한 부처님과 왕의 전용 가마연(輦)을 타도록 했으나, 반야용선을 더 선호하여 모두 반야용선으로 통일했다고 한다. 한국 불자들에게 반야용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반야용선을 타는 의식은 경남에 전승되는 산 오구굿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 오구굿은 망자를 위한 오구굿을 살아있을 때 치르는 것으로, 예수재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굿을 할 때 종이로 만든 반야용선에 굿의 주인공인 기주(祈主)의 위패를 실어 길을 닦아주고, 마지막에는 기주를 가마에 태운 채 마당을 돌며 다함께 춤을 춘다. 이를 '극락춤'이라 하여 무사히 극락왕생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때의 가마 또한 관념적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가운데 사후를 축복하는 환희로운 의식이다.

대표적인 무속신화 '바리공주'는 불교적 설리가 기반을 이룬다. 바리데기는 자신을 버린 망부를 살리고자 서천구약(西天救藥)의 험난한 행로를 떠나지만, 가는 길에 만나는 지옥의 문을 하나씩 열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극한 선업(善業)을 쌓으며 궁극의 목적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망부를 살릴 재생의 묘약이 있는 세계는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서천(西天)이며,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다.

자신의 급박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외면하지 않았던 바리데기의 보살심이, 서방정토에 도달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바리공주' 신화는 '고해를 건너는 구원의 배'의 참된 의미와 함께 서방정토를 향한 길이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말해준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⑬ 보관의 비밀–물방울과 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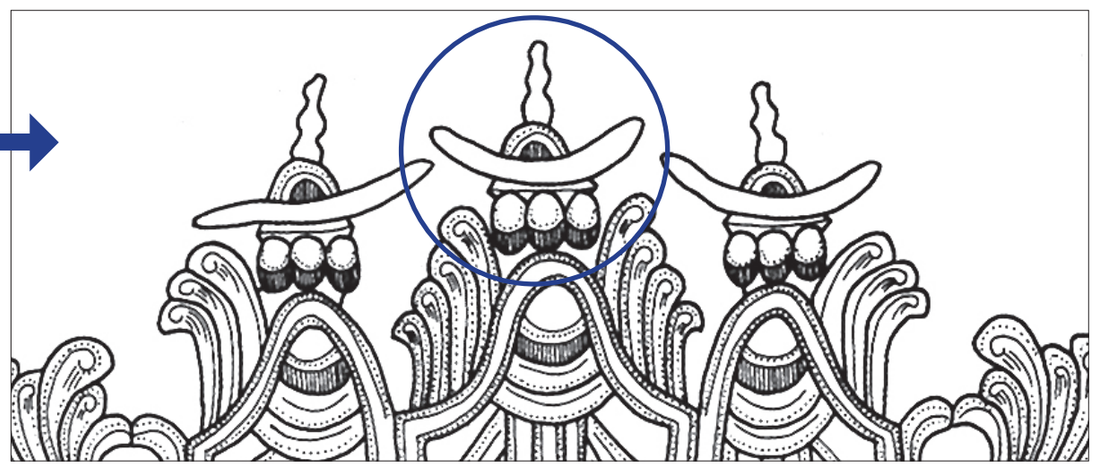
▶한줄 요약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점의 걸작 반가사유상, 국보 78호와 국보 83호의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가 보관(寶冠)이다. 78호의 보관은 모양새가 매우 특이하다. 이 보관은 창조의 원천을 의미하는 '빈두 차크라'를 형상화 했다.

반가사유상 보관, '빈두 차크라'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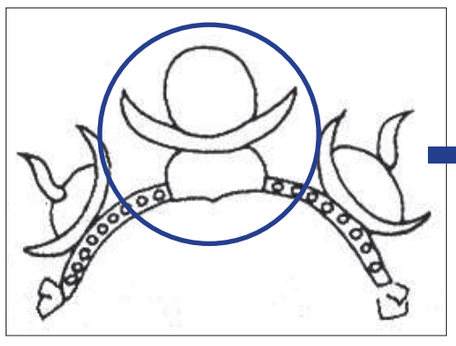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반가사유상'이다.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를 풍미했다. 약 100년 동안(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남아있는 다양한 삼국시대 조각상 중, 조형적으로 가장 높은 완성도를 이룬 것으로 보아, 당시 종교 미술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이 왕권 중심의 국가 체제를 정립하여 약진할 당시, 그 한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존상이, 정작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명칭에서부터 속 시원히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 연재에서 반가사유상의 형식적 특징을 통해 과연 이 놀라운 작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도판① 반가사유상(국보 78호)의 두상과 보관.



도판② 반가사유상 보관의 도해.



도판③ 사산 왕조의 왕관.



도판④ 빈두 차크라.

'반가부좌'와 명칭

아름다운 청년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깊은 삼매에 빠져있다.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번져있다. 고요한 삼매 속 법열(法悅)을 깊이 즐기고 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양 갈래로 땋아 세 갈래 둥글게 묶었다. 가는 팔과 긴 허리, 뒤태를 보면 그의 앳되고 가냘픈 면모가 두드러진다.

먼저 '반가사유상'이라는 명칭부터 살펴보자. 반가사유상이란 '반가부좌(半跏趺坐)의 자세로 사유(思惟)하고 있는 모습의 존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반가부좌는 한쪽 다리만 접었다는 뜻이다. 양쪽 다리를 다 접지 않고, 반쪽만 접었다는 말이다. 반가부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오른 무릎을 접어 올려 왼쪽 허벅다리에 얹고 왼쪽 발이 오른 무릎 밑으로 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오른 다리를 접어 오른 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얹고, 또 왼 다리를 접어 오른 허벅다리에 얹어, 양쪽 발의 발바닥이 모두 위를 향해 보이도록 앉는 것을 결가부좌(結跏趺坐)라고 한다.

결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곧추세우는 자세는 수행할 때의 전형적인 자세이다. 그런데 양 다리를 접어 X자 형식으로 서로 교차되게 얹고 발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않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다리를 접되 서로 교차하지는 않고 그냥 바닥에 놓는 것을 반가부좌라고 한다. 결가부좌를 하다가 만 형식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런데 반가부좌이건 결가부좌이건 모두 바닥에 앉는 자세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의문점은 바닥에 앉은 것을 전제로 하는 반가부좌란 용어가 '의자에 걸터앉을 때에도 해당되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맞고 안 맞고'의 용어의 실제 타당성을 떠나 이미 사람들의 입에 '반가사유상'이라는 명칭으로 너무 널리 정착해버렸기 그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비록 잘못된 용어라도 일반적인 공용성을 널리 획득한 용어는, 바꾸게 되면 큰 혼란이 초래되기에 용례의 '관용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세를 굳이 앞세우기보다는, 핵심 단어만 남겨 '사유상'으로 부르거나, '태자사유상'으로 부르면 타당하겠다. 태자사유상은 중국, 일본 등 여타 나라에서도 쓰는 용어로, 고타마 싯타르타가 태자 시절에 사유하는 모습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창조의 샘–빈두 차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점의 걸작 반가사유상, 국보 78호와 국보 83호(두 반가사유상을 구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보 번호로 본 연재에서 명함)의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가 보관(寶冠)이다. 78호의 보관은 모양새가 매우 특이하다.(도판①, 도판② 보관의 도해)

가운데에는 3개의 구획으로 삼각산처럼 올라온 조형이 있고 그 위로 고사리 줄기 또는 물줄기 같은 문양이 뿜어져 올라와있다. 이러한 줄기들 위로는 초승달 또는 쟁반 모양의 조형이 있고 그 위에는 반구형의 원반이 있다. 그리고 그 원반 위로 다시 몽글몽글 에너지가 피어오른다. 이러한 문양이 크게 3개의 단위로 연결되어 있다. 뭔가 매우 복잡하고 화려한데, 계속적으로 분출하고 피어오고 움직이고 있는 형상이다. 반면, 83호는 3개의 연잎 모양의 보관으로 단순하고 정제되어 있다. 83호 보관에 대해서는 본 연재 4회차 '연화화생의 원리'에서 다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83호 보관은 기존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에는 반원형의 곡선이 3개의 산처럼 보여 '삼산관(三山冠) 반가사유상'이라 이름 붙었다가, 후에 '연화관(蓮華觀) 반가사유상'으로 제 이름을 찾은 바 있다. 깨달음과 합일하는 순간, '머리에 피는 연꽃'에 대해서는 지난 연재 4회차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78호 보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의 삼신(三神)이사는 박산(博山, 또는 삼신산)의 형태라는 설이 있고, 또 해와 달(日月)을 형상화한 것이라 해서 '일월식삼산관(日月飾三山冠)'이라는 명칭도 있다. 하지만, 본 연재에서는 이것의 정체가 '창조의 샘'인 '빈두 차크라(bindu chakra)'의 모습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韓 대표하는 문화유산 '반가사유상'
국보 78, 83호 사유상 특징 '보관'
78호 보관 '빈두 차크라' 표현 추정
'창조의 샘' 의미… 만물 회귀 원천

물방울과 쟁반

창조의 샘인 빈두 차크라의 모습은 물방울과 쟁반의 형태로 나타난다(도판④). 물방울과 쟁반의 빈두 차크라의 모습은 왕관의 형태로 차용되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인도의 쿠샨 왕조를 거쳐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의 왕관을 비롯하여(도판③), 중국 초기불교미술 시대의 보살의 보관, 한국 삼국시대의 보살의 보관, 일본의 아스카시대 보살의 보관을 관통해 그 사례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관으로 나타나지만, 보관의 가장 윗부분에는 항상 물방울과 쟁반 모양의 빈두 차크라가 핵심 도상으로 자리한다.

빈두 차크라의 '빈두'는 산스크리트어로 '물방울' 또는 '점'이란 뜻으로, 요가의 전통에서는 미간의 점으로 칠하거나 보석을 붙이는 행위로 나타낸다. 불상에서는 미간의 백호 여의주로 표현한다.

빈두는 초월적인 지복과 환희를 나타낸다. 물방울은 비슈다 차크라(Vishuddha Chakra)로 떨어지는 불로장생의 '넥타'이다. 비슈다 차크라는 목 뒤에 있는데, 황금빛을 띠고, 열여섯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 모양이다. 이곳이 열리면 외부의 집착을 떠나 내면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탄트라 경전에 따르면, 머리 뒤통수의 빈두 안에서 인체의 달이 생명의 물인 넥타를 분비한다고 한다. 초월적 생명수로 이는 자아가 사하스라라(제7차크라)의 신성성으로 연결될 때 흐르는 통로로 간주된다. 베다의 전통에서는 마디야, 신성의 물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로는 암브로시아라고 하여 영생의 음식, 신의 음식으로 여겨진다. 불교에서는 이 넥타를 '감로(甘露)'라고 한다.

이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와도 같은 쟁반에 떨어지면, 파장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 만물이 창조되는 구조이다. '빈두 비사르가'는 '방울의 떨어짐'이란 뜻으로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점을 뜻한다. '창조의 원천' 또는 '창조의 샘'으로도 불린다. 창조의 샘이 발현되는 모습은 '하현달 위의 동그란 방울'로 조형화된다. 빈두 비사르가는 만물이 나타났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궁극적 원천이다.

빈두는 제6차크라와 제7차크라 사이의 머리 뒷지점에 위치한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미간에 위치한 제6차크라가 열린다. 제6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Ajna Chakra)는 '제3의 눈'이라고 부르며 명상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갖가지의 정신집중 상태를 지배한다. 이것이 열린 것을 조형적으로 미간 사이의 '백호 여의주'로 표현한다.

아즈나 차크라는 제1차크라에서 제5차크라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운행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켜 온 우주에 번지게 한다. 수행자들은 아즈나 차크라를 통해 신성을 자각하는 두 번째 탄생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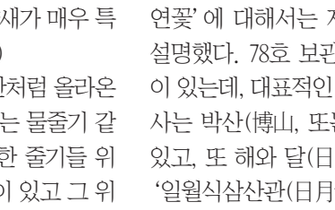
마지막 백회 차크라인 제7차크라인 사하스라라 차크라(Sahasrara Chakra)는 산스크리트어로 영광 · 승리 · 완성 등을 의미한다. 6개의 차크라들이 잘 운행되고 조절되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데,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머리 주위의 빛(후광, 원광)은 사하스라라의 빛이다.

'빛의 왕관'은 불교미술에 있어 '광배'로 구현된다. 빛의 왕관은 제6차크라가 열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해 제7차크라가 열리면서 그 절정에 달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80만원

이안의 Media In Buddha ⑲ 영화 〈걸신포차〉



▶한줄 요약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소개된 말레이시아 초 웨 준 감독의 〈걸신포차〉는 불교문화와 스토리텔링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영화다.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영화 배경이 되는 이 영화는 올해 넷팩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지옥에서 엄마를 구하라

세간에서는 절기로 계절을 알고, 영화계에서는 영화제로 계절을 느낀다. 국내 영화제 가운데 봄을 여는 영화제가 전주국제영화제라면 여름의 대표적인 영화제는 연혁으로나 대중적 인지도로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감독, 프로듀서, 연기자, 영상산업 관계자, 학자들이 모이고, 시네필들이 모이고,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의 시민들과 어울려 '이상해도 괜찮아' 라는 열린 마음으로 영화를 즐기는 것이 영화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이라 더 각별하고, 더 반가웠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복원된 고전 명작, 스타 감독의 신작뿐 아니라 세계 신진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 특히 미국 상업영화 위주로 돌아가는 상업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장르 영화들을 볼 수 있다. 찬사도 있고, 상도 있고, 만남도 있다. 그리고 각 문화권에 따라 종교적 배경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고, 그 가운데는 불교적 사상과 역사가 바탕이 되는 작품도 있다.

이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소개된 말레이시아 초 웨 준 감독의 〈걸신포차〉는 오랜 불교문화와 스토리텔링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영화다. 계절에 딱 어울리게 세간에서는 백중, 불가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영화 배경이 되는 인물들을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는 이 영화는 올해 넷팩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음력 7월 15일을 세시풍속에서는 '백중' 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특별히 '우란분절' 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백종 · 중원 · 망혼일이라고도 한다. 여름이 한창인 이 무렵이 되면 과일이며 채소가 많이 나와 백가지 곡식과 푸성귀 종자를 갖추어 놓을 수 있어서 백종이라고 했다. 또 중원이라고 하는 까닭은 1월 보름인 상원과 10월 보름인 하원, 그리고 그 사이에 7월 보름인 중원날에 삼원이라는 초제를 지내는 도가의 세시풍속에서 비롯된 풍속이 불교에까지 이어진 내력이 있어서이다.

도교의 중원절인 이날, 불가에서 우란분회 공양을 하는 풍속이 있어서 우란분재라고도 하는데, 특히 중화권에서는 음력 7월을 귀신의 달이라 여겼으며, 그 가운데 날인 중원절에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혼이 산 자를 찾아온다 하여 고인들을 위한 빈자리와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까지는 널리 퍼진 풍속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는 사찰에서만 행해지고 민간에서는 조상을 기리는 의례를 추석에 차례로 치르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우란분절에 절에서는 재(齋)를 올리고 공양을 드렸으며, 민간에서는 100가지 과실을 차려 제사를 지내고 남녀가 모여 음식을 먹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는 한창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차례를 올리고 백중잔치를 하며 조상을 기렸고, 백중날 하루뿐 아니라 그 앞뒤로 큰 장이 섰는데 이를 백중장이라 했다.



말레이시아 초 웨 준 감독의 〈걸신포차〉 한 장면.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넷팩상을 수상했다.

아마도 농사가 기본이었던 문화권에서는 봄부터 여름까지 농번기로 쉴 틈이 없었을 것이다. 그 바쁜 와중에 백중날이 되면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그날 하루는 모든 일을 멈추고 머슴에게도 휴가와 삯을 주어 백중장에 가서 하루를 즐기도록 했다고 하니 오늘날의 여름휴가와도 같은 절기였을 것이다. 백중장에서는 씨름판과 장치기 등의 놀이도 펼쳐져 청년들의 재미도 끌고 사기도 북돋워 주었으며,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은 소나 가마에 태워 마을을 돌면서 노동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청년에게 어깨 펼 자리를 펼쳐주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풍습을 여전히 이어가는 말레이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걸신포차〉가 수상한 넷팩상은 아시아영화진흥기구인 넷팩(NETPAC)이 수여하는 상이다. 넷팩 멤버 및 문화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SF, 스릴러, 코미디, 판타지, 드라마까지 장르는 넘나드는 작품들 가운데서 최고 아시아 영화를 선정한다.〈걸신포차〉는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열렸던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산업프로그램인 B.I.G 행사 가운데 기획 개발 예정인 작품들에게 제작에 필요한 지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행사인 'NAFF 프로젝트 마켓' 에 〈헝그리 고스트 다이너〉라는 제목으로 참여해 NAFF상을 수상했던 작품이다. 그리고 2년 만에 감독의 미래였던 기획안이 완성된 작품이라는 현재가 되어 영화제에서 최고의 아시아 영화라는 인정을 받으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 초 웨 준 감독 〈걸신포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넷팩상 수상작
우란분절 설화 바탕한 스토리텔링 눈길
현대 가족 불화, 코로나 이후 희망 담겨

젊은 감독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획안 발표의 기회와 영화계 멘토로부터 조언을 받고 제작비를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젊은 영화인들에게 이렇게 부모, 선배, 친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 영화제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의미이자 가치이다. 〈걸신포차〉는 바로 이렇게 영화제를 통해 프로젝트가 싹이 트고 완성된 작품이다. 한국 영화관객들이 자주 볼 기회가 없는 말레이시아 영화지만, 불교적 세계관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봉쇄와 거리두기, 청년 실업,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 풋풋한 청춘들의 만남, 도시와 달리 서로서로 이웃끼리 다 알고 지내는 지방의 인간관계들이 빚어내는 영화적 재미가 전혀 낯설지 않은 친근함을 빚어내는 만듦새를 보여준다.

영화의 주인공은 도시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보니라는 젊은 여성이다. 보니가 장사를 마치고 트럭을 정리하는 어느 여름날 밤, 느닷없이 외삼촌이 찾아온다. 외삼촌에게 차를 대접하고 얘기 좀 나누려는데 영업시간 마쳤으니 빨리 정리하라는 관리인의 독촉을 상대하고 돌아서보니 찻잔은 깨져 바닥에 흩어져있고 외삼촌은 그새 사라져 버렸다.

보니는 어렸을 때 중원절에 젊은 엄마를 여의었다. 엄마 제사를 치르다가 중원절 잔치가 한창이던 동네를 헤매다가 집을 잃었던 보니를 찾아서 다정히 대해준 사람이 바로 외삼촌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니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어 서로 살갑지 않은 사이로 지내 온 지 오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니는 외삼촌과 각별한 정을 쌓아 왔다.그런 외삼촌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몇 마디 말만 나누고 사라져 버리자 문득 보니는 트럭을 몰고 고향으로 향한다.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와 외삼촌이 운영하던 식당은 문을 닫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참이었다. 그리고 외삼촌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기 직전이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장사가 어려워져 은행 빚만 쌓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핑계로 보니와 가까이 하는 것도 어색해 할 만큼 데면데면하게 대하다 보니 트럭에 아버지를 태우고 길을 나섰던 보니는 홧김에 아버지를 도로 한가운데서 내리라고 하고서는 도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로 봉쇄령이 내려 도로가 통제된 상황이라 어디 갈 곳도 없는 보니는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 트럭을 세우고 잠이 든다. 이렇게 틀어진 보니에게 외삼촌이 찾아오고, 보니를 절로 이끈다. 그렇게 꿈속인 듯 환상인 듯 헤매던 보니는 엄마가 배고파 걸신이 든 아귀가 된 것을 알게 된다. 엄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보니도, 절을 지키는 스님도, 아버지도 각각 중양절을 맞이하게 된다.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영화 안에서 갈등의 고비마다 엄마가 죽었던 어린 날 중원절 축제에서 보았던 목련존자 인형극이 실마리처럼 펼쳐진다.

〈우란분경〉을 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귀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아귀지옥에서 구해내고자 음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올렸으나 어머니가 생전에 지은 죄업이 너무도 두터웠기에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닿자마자 뜨거운 불길로 변해 버렸기에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청하며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할 방법을 여쭈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어머니의 죄의 뿌리가 깊어 목련존자 혼자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 없으니 음력 7월 15일 하안거가 끝나는 날에 여러 곳에서 많은 스님들이 모였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면 불보살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어머님께서 해탈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고, 이를 따라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우란분절인 백중날에 성현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면 조상의 영가들이 구원받아 지옥을 벗어날 수 있고, 살아있는 부모의 여생이 행복하게 되며, 이승을 떠난 부모는 좋은 국토에 태어나서 무량한 복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인형극은 대중적인 불교 설화 가운데 하나다.

〈걸신포차〉는 이렇게 오랜 목련존자 이야기를 씨줄로 삼아 현대를 사는 청년들의 부모와의 불화, 말레이시아의 여러 민족 가운데 불교문화를 뿌리로 하는 중화권 지역의 특성,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와 화해로 나아갈 계기를 만들어가는 희망적 대중의 발원을 영화에 담고 있다.

이 환상적인 영화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화제에서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그리고 곧 다가올 우란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처럼 부모자식 사이에 소통하고, 돌아가신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

〈영화평론가〉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참된 성품엔 유위가 공하다

〈有爲〉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㉖ 참된 성품

〈원문〉 그때 부처님이 게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참된 성품에는 유위가 공하건만 연(緣)으로 생기는 까닭에 허깨비와 같으며 무위(無爲)는 일어나고 소멸함이 없어서 실답지 못한 것이 허공꽃과 같으니라. 허망함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내려면 허망과 진실이 둘 다 허망이니 진실도 아니고 진실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 능견과 소견이 있으리오. 중간이란 실제 성품이 없으니 이렇기 때문에 갈대와 같으며 매듭을 묶고 매듭을 푸는 것이 인한 바가 같아서 성인이나 범부가 둘이 없느니라. 네가 식(識)의 성품을 보아라. 공(空)도 아니고 유(有)도 아니니 미혹해 어두우면 무명이요. 펴서 밝히면 해탈이니라.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가 있나니 육근(六根)의 매듭이 풀어지면 하나도 없느니라. 근(根)에서 가려 원통을 택하면 법의 흐름에 들어 정각을 이루리라. 아타나의 미세한 식(識)은 습기가 폭류를 이루나니 진실과 진실 아닌 허망에 미혹될까 두려워하여 내가 항상 연설하지 않았노라.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취하면 허깨비 아닌 것이 허깨비가 되느니라. 취하지 아니하면 허깨비 아닌 것도 없으리니 허깨비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늘 허깨비 같은 법이 어떻게 성립되리요, 이것을 이름하여 묘연화 금강왕보각이라 하며 허깨비 같은 삼마제라 하느니라.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에 무학을 뛰어넘으리라."

〈강설〉 5권에 나오는 부처님의 게송 설법이다. 참된 성품이란 여래장묘진여성이다. 줄여서 진성이라 했는데 곧 불성(佛性)을 말한다. 이 불성 자체에는 유위법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말인 무위법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위법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 나타내 보이는 모습과 같다고 했고 무위법은 허공꽃(空華)과 같다고 비유를 했다. 진성의 자리는 유무(有無)를 초월하기 때문에 유위, 무위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구사론이나 유식 등에서 법을 분류하여 오위법(五位法)으로 말할 때 허공이나 열반을 무위법의 범주에 넣기도 하지만, 성(性)은 특정 범주가 없다는 것이다. 유위는 있는 것을 말하고 무위는 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성은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답지 못한 것이 허공꽃과 같다고 했다. 보통 범부 중생은 유에 집착하고 이승들은 무에 집착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이 생기는 것은 성에 미혹했기 때문이다. 성에 미혹되면 진(眞)이 될 수 없다. 망(妄)을 말하여 진(眞)을 나타내면 망(妄)과 진(眞)이 둘 다 망(妄)이 된다고 했다. 무척 어려운 말이지만 성(性)은 논리를 세워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어서 능소(能所)가 없다고 했다. 진실이 아닌 것은 허망도 아니란 말이다. 능견과 소견은 근(根) 진(塵)이다. 근은 주관을 이루고 진은 객관을 이룬다. 그래서 근진이 상대하면 주객이 나뉘어져 식심분별이 일어나지만 성품 자리는 주객이 없는 자리라는 것이다. 성품 자리인 본마음에 매듭이 생긴 것을 근(根)이라 하여 육근(六根)을 여섯 매듭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부처님이 수건을 묶어 여섯 매듭이 생기게 하고 이것을 푸는 것을 아난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육해일망장(六解一亡章)이다. 육근이 맺히면 범부이고 풀리면 부처인데 중생은 맺혀 있는 육근에 집착하고 부처는 풀려버렸기 때문에 집착이 없다. 집착하는 것은 생사의 경계이고 집착이 없는 것은 열반의 경계인데 맺히고 풀리는 것은 육근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나 부처가 두 길이 없다고 하였다. 유에 집착하는 범부나 공에 집착하는 이승(二乘)이 다 틀렸다는 것이다. 진성을 미혹하면 어두운 무명이 되고 펴서 밝히면 해탈인데 매듭을 차례로 풀어서 여섯이 풀리면 하나도 없다 하였다. 이 말은 매듭이 다 풀리고 나면 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아타나(阿陀那)는 팔식의 다른 이름으로 모든 업의 종자를 간직해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의 이름이다. 이 식에 있는 습기가 세차게 흐르는 폭류와 같다는 말이다. 이 폭류가 곧 업종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모든 경계 허공해탈 관점서 봐야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㉖ 보시바라밀

경계의 제도는 존재목적을 성취시켜주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아픔을 치료해 주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경계의 제도이다. 경계를 제도할 때는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가 함께 활용된다. 본성으로 비춰주면서 관여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금강해탈도를 행하는 것이다. 존재목적을 성취시켜주기 위해 사유하는 것이 허공해탈도를 행하는 것이다. 경계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를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경계를 바라보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중생의 가치는 창조적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세간에 펼쳐진 수많은 다양성은 그만큼의 허공해탈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음악, 미술, 문학, 기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통해 허공해탈이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법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현상을 허공해탈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본성을 활용하는 것을 체용(體用)이라 하고 경계를 활용하는 것을 상용(相用)이라 한다.

금강해탈뿐만이 아니고 허공해탈적 관점으로도 체용과 상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적정문과 대자비문이 구족해진다. 이것이 본성으로 행해지는 두 번째 유형의 보시이다. 간극의 적멸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 이때의 보시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이다. 간극의 적멸상을 활용해서 자기 안, 이, 비, 설, 신, 의를 제도한다. 이것이 바로 이때에 행해지는 자리행(自利行)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눈을 제도한다. 반개를 하고 위 눈썹과 아래 눈썹을 선으로 인식한다. 그런 다음 그 두 개의 선 사이를 채우고 있는 공간을 들여다본다. 두 개의 선 사이에서 인식되는 빈 공간을 간극으로 삼는다. 그 간극을 통해서 '본다' 라는 생명의 느낌을 들여다본다. 맑고 투명한 식의 바탕이 인식되면 보는 작용이 제도된 것이다. 보는 것이 제도되면 이때부터는 이타행(利他行)을 행한다.

보이는 모든 경계를 맑고 투명하게 보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보시바라밀이다. 간극을 활용해서 귀를 제도한다. 양쪽 어금니를 지긋하게 물었다가 힘을 빼면서 귓속의 변화를 느껴본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면서 소리 경로가 열고 닫히는 것을 인식한다. 소리 경로를 따라 귓속으로 들어간다. 양쪽 귓속에서 텅 빈 공간을 인식한다. 그 두 개의 공간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 보게 한다. 텅 빈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들여다본다. 때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소리가 끊어진 적멸처를 인식하게 된다. 벌레 우는 소리, 바람 소리, 속삭이는 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뚝 끊어진다. 소리가 끊어지면서 적멸처가 나타나면 그 적멸처의 상태를 눈으로 들여다본다. 그런 다음 그때의 공간감과 형질감을 감각으로 인식한다. 귓속의 텅 빈 느낌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약 2분 30초 간격으로 적멸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소리가 일어난다. 턱관절에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들리고 힘이 빠지면 적멸처가 드러난다. 이것이 소리 경로에서 형성되는 첫 번째 간극이다.

양쪽 귓속에 형성된 적멸처를 관하다 보면 두 개의 적멸처가 하나로 합쳐진다. 처음에는 두 개의 적멸처가 좁은 관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지나면 전체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다. 양쪽의 적멸처가 합쳐지면 중간 지점에서 더 큰 적멸처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형성된 적멸처를 시각과 감각을 활용해서 들여다본다. 이것이 소리 경로에서 세워지는 두 번째 간극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㉖ 속박과 해탈

욕망은 정점이 없다

'제 줄로 제 몸을 묶는다[自繩自縛].' 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용한다. 여기에서 '구속되어' 라는 말과 '괴로움을 당할'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마도 좋지 않은 일이 당사자에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런 언어들을 깊이 있게 사유한다는 것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표면적인 이해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뜻의 소통으로 한정 짓지 않는 것이다. 채택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미완의 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통찰은 그런 언어를 완성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다. 언어가 사용될 때 통찰은 그 언어를 살아나게 한다. 통찰은 어떤 시작점을 만들지 않아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치우침 없는 중심을 잡게 된다. 하지만 통찰이 없으면 중심을 잃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언어를 죽게 만든다. 죽은 언어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언어가 한 쪽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 언어는 서로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최적의 효용을 이용하지 못할 뿐이다.

언어는 우리를 구속한 적이 없다. 우리가 '나' 라는 개체의 시작점을 만들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분별이 사실같이 인식되어진 것이지, 그 인식이 사실은 아니다. 세상에는 어떤 물질도 중심이 될 수 없다. 구속할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속되고 괴로움을 당한다. 만들 수 없는 '나' 를 만들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지만 이것이 왜 어리석음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정점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물질이든, 감촉이든, 인식작용이든, 어떤 한 맛을 느끼고자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속박이고 어리석음이다. 욕망은 정점이 없다. 더 오르거나 내려갈 여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가 욕망의 정점이다.

"일체가 자기 마음의 현량경이며, 유와 무의 일체 자성에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네. 볼 수 있는 현상이 없는 속에서 적정이 이어지니, 이 때문에 일체법에 대해 이어진다느니 이어지지 않는다느니 하는 생각조차 사라지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속박이라 할 것도 해탈이라 할 것도 모두 사라져 버리네."

지금 그대로 각각의 조건들이 속박 없는 완전한 해탈이다. 인위적인 변환이 필요 없다. 차차 가장 낮은 단계의 물질의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내일을 위함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매일 조건 없는 해탈을 만끽한다. 따로 손에 가져야 하는 것도, 피부에 느껴야 하는 것도, 두뇌에 기억해야 하는 것도 없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에 선택 없는 선택을 한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을 알기 위해 내일을 위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는 그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양변을 일으키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 지혜 없는 자를 '나' 라고 하는 것이 속박이다. 속박이 있으면 해탈이 있겠지만 속박이 없으면 해탈도 없다. 진정한 해탈은 해탈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해탈이 없음을 알 때, '나' 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이름 붙여야 할 대상을 만들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속박에 묶인다. 속박은 속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족스러움도 있으니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들이 본질을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환은 실재가 될 수 없다. 언제나 환이다. 그러니 다음에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온은 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미루고 오온을 '나' 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면 할수록 꼬인다. 오온에게는 즐거움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은 즐거워서가 아니다. 갈증에 대한 해소 때문이다. 그러나 오온이 원하는 것은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 오온이 내가 아님을 바르게 알 때 그런 갈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오온을 '나' 라고 하지 못한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3호 | 17 | 전면광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괴롭고,
구하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즐겁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속고승전》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밀양포교원

- 밀양터미널앞 2층 약 60평
- 전세:1천만원, 월세 45만원
- 비품시설 1.500 (절충가능)

010-8519-5657

사 찰 안 내

- 대구 동구 신암동
- 대지 : 80평
- 1층 요사 , 28평, 방6개
- 2층 법당 26평
- 지하공양간 43평, 방4개
- 조용한곳
- 가액 : 15억

010-3501-5230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부근
- 대지 약 365평, 가용 평수 약 600평(하천부지 포함)
- 법당, 약사여래, 삼선각, 요사채, 스님이 사용하는 방 3칸, 입석부, 종무실 1개, 창고 2개, 신도님 식당, 23년 초 현대식으로 새로 지음, 주차장 완비
- 시내버스 거리,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 가액 : 4억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절 창건한지 90년

010-4583-4895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읍내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27평
- 대지 200백평, 매매 및 전월세
- 매매 : 3억 1천만원 / 전월세 : 2,000만원에 월 40만원

010-9485-9318

토굴 땅 안내

- 괴산 토지 500평, 평당 25만원
- 이면도로 2차선도로적
- 가까이 호수같은 큰 저수지 있음
- 주변 경관이 조용하며 토굴짓기에 좋음

010-4876-1058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대지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7m 정도) / 부처님 사리(협의)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앞 개울이 있습니다. 앞산 능선이 와불로 되어있습니다.
- 매매가 : 2억 3천만원(절충 가능)

010-2807-0509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약 230평 (요사채, 법당, 공양간 등)
- 가액 : 3억(절충가능)

010-9389-7457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불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완도군 군외면 당인3길 93
- 총평수 2000평
- 법당 22평, 산신각 6평, 요사체 35평, 25평(두채)
- 가격절충
- 서경보 스님 주석하셨던 사찰

010-5635-9499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대지 155평, 법당 3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1층
- 가액: 9억 (절충가능)

010-6760-8320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10분 거리
- 종교 계획관리 730평, 대지 250평, 요양부지, 요양원 토목공사 완료 1000평, 차고, 목조단청대웅전 50, 산신각 20평, 찜질방, 휴게소, 주방 종각 , 연못 잔디광장, 각종 탑, 진시사리, 12m 해주관음, 양쪽 대형용, 접견실방 5개, 남녀화장실 3, 요사채 4동,
- 보시고 상담 후 결정

1899-0047
010-5883-2255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35-1739

산신각 불사 안내

- 소재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 사찰 :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기도도량 문성암
- 소개 : 덕룡산은 초의선사 출가도량이며, 백제의 고찰 불회사가있다.
- 시주: 설판시주 5천만원
  동참시주 1,000 만원 (5가족)
  동참시주 500 만원 (10가족)

061-337-0711 (문성암)
010-2354-9908

사 찰 안 내

- 토굴 (촌집)
- 윗채 15평 , 방 2개, 마루 아래채 12평, 방 2개, 창고
- 건물주인 : 비구니 스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미길 23
- 매매 : 3천5백만원
- 특징 : 허름한 시골 촌집, 아궁이 불지펴서 난방

대리인 : 010-2367-008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3억 5천만원

010-8411-1217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7천만원

010-4506-5302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홍성군 – 시내 5분거리
- 대지 : 160평 , 텃밭 100평
- 시설비 : 2000만원
- 울창한 소나무 숲 위치함
- 문중토굴 : 연세 12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7942-9015

포교원 안내

- 통영시 사거리
- 땅 60평 , 건평 36평 2층 건물
- 3층석탑 , 석등
- 마당주차 6대
-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8669-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43호 | 18 | 전면광고

큰 바다는 널리
온갖 물을 받아들이지만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대승장엄경론》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절에 계실 처사님 구함

- 절에서 계실 처사님, 행자님, 스님하실 분 구함
-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개인지도 (3~12개월)

불교인 · 무속 신앙인은 꼭 배우셔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께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시원한 답을 주세요.

- 질병치유 심리학 (암시, 명상, 최면술)
- 5장6부론, 사상체질론, 기혈음양론, 질병예측론, 신경성 질환의 원인과 치유법, 정신병과 특수성격, 부부사랑학, 의처증과 의부증

문자남김 010-4078-7810
심리철학 혜천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사주 명리 구성학

- 1대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 찾집하실 보살님!
- 대전스님



010-9497-3476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집으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대금
- 밀양 : 영원사

010-3156-2211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민의
서도로 재기는 경구

⑫ 일일일선(一日一善)



불자의 '착한 일', '전법'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나름의 계획과 목표들로 시작한 2023년인데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벌써'가 아니라 '아직' 6개월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가 가진 시간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여튼 2023년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불자님들의 계획들은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을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올해 '一切有心'이란 글로 시작하여 많은 감동을 넘어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함을 피부로 느끼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저의 사무실 창 너머로 조금은 특별한 일상을 보고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의 다양한 포교 모습입니다. 그들이 포교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종교를 알리고 교세를 넓히기 위해 불철주야로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타 종교인들의 모습이 반드시 좋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불자인 나는 평소에 얼마나 포교에 마음을 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나, 가끔 바람이나 쐬러 절에 가는 나는 과연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불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이번 주 글은 '일일일선(一日一善)'입니다. 직역하면 '하루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자'입니다. 착한 일? 너무너무 많지요. 우리 불자님들의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불법에 귀의하고 그 불법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㉟ 최두석의 '주목의 환생'

공즉시색 색즉시공

주목의 환생 / 최두석

함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곁에 고사한 주목 한 그루, 비록 잎은 없어도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도 얼추 갖춘 모습으로 비바람 맞고 서 있었다. 원래 자장이 석가의 사리를 모셔온 뒤 꽂아둔 지팡이였다는 전설과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이 오랜 세월 신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였다.

한동안 고사목은 새들의 쉼터가 되었다. 온갖 새들이 날아와 쉬다가 똥 싸고 날아가기를 되풀이하였다. 새똥은 고사목의 텅 빈 몸통을 통과하여 떨어져 쌓였고 그 똥 무더기 속에서 씨앗이 싹을 내밀었다.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고 나니 어엿한 주목이었다. 고사목 몸통 속에서 어린 주목은 힘껏 줄기를 밀어올리고 가지를 내밀었다. 세월이 흘러 가지는 고사목의 몸통을 뚫고 활개 치듯 벋어 나왔고 다시 세월이 흘러 줄기는 고사목의 우듬지 높이로 자랐다

이제 새 주목은 옛 고사목과 한 몸처럼 껴 앉고 있다. 산 붉은 살결이 죽은 잿빛 뼈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합장하는 불자들도 많다.

–최두석 시집, 〈두루미의 잠〉, 문학과지성사, 2023

아,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죽어서도 '붉은 주먹'[주목(朱木)] 불끈 쥐고 살아서, 살아 있는 우리들을 '주목'(注目)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붉은 전설이 있었던가?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더니, 진짜로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살아서 우리들의 '과·현·미'(과거·현재·미래) 삼세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구나.

어느 겨울 날 함백산 정암사 적멸보궁에 오른 최두선 시인이 우리들에게 그 천 년의 '붉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지치고 추운 새들(중생들)의 쉼터가 되었던 '죽은' "고사목"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 쉬다가 똥 싸고 날아가기를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가 싼 똥들'이 "고사목의 텅 빈 몸통을 통과하여 떨어져 쌓였고"[공즉(空卽)], "그 똥 무더기 속에서 (또 하나의 천 년의)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 높이가 "고사목의 우듬지"까지 닿은 "어엿한" 새 주목으로 "자랐다"[시색(是色)]는 것이다.

바로 그 대목에 '죽어서 천 년, 살아서 천 년'의 주목의 비밀이 들어 있음을 최두석 시인은 이렇게 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즉시색 색즉시공'(空卽是色 色卽是空)의 세계였던 것이다. '공이 공인 것'[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은 다시 '새로운 삶'[생(生)]을 아무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어느 날 어느 책자를 읽다가 '타인의 죽음은 내 삶의 거울이다'라는 글을 읽었다.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했다. 자신의 죽음도 볼 수 없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죽음뿐이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배우고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4000여 년 전에 쓰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의 서사시〉의 핵심 내용도 죽음이었다. (……) 그러나 과연 죽음은 극복될 수 있는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다만 조금 미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 밖에 있는 타인의 죽음은 결코 타인만의 것이 아니다. 전쟁, 재난, 사고 등 슬픈 죽음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나와 내 가족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 냉정한 사회는 철학적으로 빈곤한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돈을 긁어모으고, 영원히 살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보내는 삶의 경고가 타인의 죽음이다. 죽음은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고마운 거울이다."

다소 긴 인용이 됐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최두석 시인의 이 시가 더욱 엄중하게 다가왔다. 특히 "원래 자장이 석가의 사리를 모셔온 뒤 꽂아둔 지팡이였다는 전설과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이 오랜 세월 신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였다."는 시구는 길가메쉬가 친구인 엔키두와 함께 신의 명령을 어기고 '명성'을 얻기 위해, 혹은 자신의 몸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인간은 필멸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험을 강행하는 모습과 겹쳐지면서 인간의 유한성과 우주(불교, 부처)의 위대성을 함께 총섭하게 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자. 죽은 고사목처럼 보였지만 주목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다. 새 삶의 시작하기 위해 몸뚱어리(몸통)를 잠시 '비웠을 뿐'[공(空)]을 뿐이다. 다만, 어리석은 인간들만 고사목이 죽었는데 부처님의 자비로 '다시 살아난다'[윤회(輪回)]는 믿음을 믿고 길가메쉬 같은 두려움에 합장을 올리며 예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은 절대로 죽지 않는 비 윤회의 나무다. 천 년 동안 살면서 몸을 비워내면 또 새똥에서 새 씨앗이 나와 천 년을 다시 시작하고, 그 몸이 또 텅 비워지면 어린 주목이 다시 태어나 우듬지 높이로 자라 우리들의 삶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주목(注目)]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최두석 시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새 주목은 옛 고사목과 한 몸처럼 껴앉고 있다. 산 붉은 살결이 죽은 잿빛 뼈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합장하는 불자들도 많다."고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놀라울 만큼 진실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주목나무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런데 자장율사는 왜 하필 부처님의 지팡이를 가져와 이곳 함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옆 높은 곳에 꽂아두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고(苦)를 그렇게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닐까. 부처님께서 평소 짚고 다니신 지팡이라면 보통 성물(聖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기꺼이 주신 지팡이를 자장 율사는 왜 높고도 높은 황지의 진산(鎭山)인 이곳 정암사 적멸보궁 옆에 꽂아 놓고 불자(정암사 신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였"을까? 물론 그것은 '시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해발 1573m 높이에 있는 함백산에 오르는 동안 속세의 모든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심을 거기다 완전히 다 벗어놓으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것도 부처님 최고의 성물인 지팡이를 꽂아놓고 말이다.

죽은 듯 보였던 고사목은 "이제 새 주목"이 되어 "옛 고사목과 한 몸처럼 껴 앉고 있다." 그리고 해발 1573m를 올라오느라 받은 숨을 컥컥 내뱉는 불자들에게 "산 붉은 살결이 죽은 잿빛 뼈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합장하는" 많은 "불자들"을 '두 눈 부릅뜨고'[주목(注目)] '산 붉은 살결'[주목(朱木)]로 바라보고 있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한쪽다리 겨우 살렸지만 재활까진 막막

시댁 괴롭힘 벗어나 홀로 생계 이어가던 파르바티씨
끊어진 힘줄 스님·도반 덕에 수술…빚 1000만원 남아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에 답이 있다 ❷ 통념을 깨는 명상의 진실

▶ 한줄 요약
만약 용서, 자비 또는 내가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정한 영성적 개념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명상을 한다면 영성적인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자세·종교·스승에 얽매이지 말라



명상의 출현과 역사

언제, 어느 때 명상이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문헌상 명상의 방법들에 대해 언급된 것 중 최초의 것은 지금부터 약 5000여 년 전 '탄트라(Tantras)'라고 불리는 인도의 고대성전에 기록된 것이다. 더 이상의 오래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명상은 50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져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명상은 아주 먼 원시 수렵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렵시대 포획한 동물을 구워서 배불리 먹고 펄럭이며 춤추는 불꽃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명상의 묘미를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의 펄럭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른한 이완감과 평화로움이 찾아왔을 것이며, 그런 평화로움 속에서 문득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과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아늑한 환경 속에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면서 느끼는 이완감은 무척 행복하고 평화로웠을 것이며, 이런 멋진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어했을 것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멋진 경험을 전하고 싶어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유쾌한 경험들이 5000여 년 전 '탄트라'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 후 계속되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명상수련의 기법들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B.C. 566년 석가모니 출현 전후라고 볼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수행법은 인도로부터 인접한 여러 나라로 퍼져갔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수행자들에 의해 각기 자신의 주관적 취향에 따라 많은 명상 기법들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명상법은 대부분 석가모니가 처음 개발한 명상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명상의 전통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온 불교식 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명상이 서양에 전달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양의 문화는 알다시피 과학적이고 기독교적이다. 명상이 본격적으로 서양에 유입된 시기는 1960년대부터였다. 비틀스와 히피들이 인도 문화에 경도된 영향도 있었고, 베트남전 당시 보트피플이 미국으로 넘어온 영향도 있었다. 젊은이들이 명상에 심취함에 따라 견고하던 서양문화권 장벽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양에 도착해서도 명상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명상에 대한 신비감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과거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카타토니아(catatonia)라는 일종의 긴장성 정신병의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했다. 이 상태는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여러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잘 보이는 증세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명상이 보급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생리학자, 심리학자, 의사들이 명상의 효과에 관한 의학적·심리학적·신경과학적 연구결과를 거듭 발표하면서 명상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명상상태를 마치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른바 '의식의 변경 상태(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와 유사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1975년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그중 하나가 '동양'에 대한 재인식과 관심이다. 수많은 서양의 지식인들이 티베트 출신의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 스님과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을 찾아가 불교명상을 접하고 불교와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들이 서양에 명상과 명상의 효과를 전파한 허버트 벤슨, 잭 콘필드, 대니얼 골먼, 존 카밧진, 리처드 데이비드슨, 마티외 리카르와 같은 의사(현재는 승려), 심리학자, 과학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뇌가 바뀐다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세상에 알렸다. 이런 연구결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열광하는 이유가 되었다.

최근에는 과학계뿐 아니라 휴 잭맨, 오프라 윈프리 같은 유명인사도 공공연하게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만 명상인구가 3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첨단기술의 메카 실리콘밸리의 과학기술자들도 명상에 빠져 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도 명상과 선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이를 스마트폰 기술에 접목시킨 인물로 유명하다. 최근 뉴요커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요가와 명상이다.

> "5000년 전 '탄트라' 명상 기록 붓다 이후 명상기법 변화 커져 1970년대 서양서도 효과 입증 명상 어렵다는 편견 벗어나야"

명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부좌 -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두 다리를 완전히 꼬고 앉아 있는 소위 가부좌란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명상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자세를 취해야만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초보자들은 명상을 시도하기도 전에 아예 포기하고 만다. 명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어려운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다리의 놀림이 비교적 유연한 젊은 시절에 명상을 시작한 사람은 이런 가부좌 자세를 취하기 쉽고, 이런 자세에 익숙해지면 다른 자세보다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취하기 쉬운 자세를 취하면 된다. 따라서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할 수도 있고,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누워서 할 수도 있다. 자신에게 편한 자세를 취하면 될 뿐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정종교 - 흔히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명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명상이 마치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특정 종교 수행의 한 행위이거나 이런 종교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종교적 경험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는 모두 고유한 형태의 명상 체계가 있다. 특히 신체적·정서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명상법만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얻어가는 일차적 이점을 한 단계 넘어 영적인 이점도 명상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약 용서, 자비 또는 내가 우주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정한 영성적 개념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명상을 한다면 영성적인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현실도피 - 많은 사람들이 명상은 책임이나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견해는 맞지 않다. 명상을 하는 목표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이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주의집중이 잘되고, 현실을 보다 잘 수용하게 되어 삶의 경험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느껴지게 된다. 또한 명상은 지나치게 날카롭게 판단하지 않고 넉넉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삶의 모든 측면에 보다 충실히 개입하고, 수용하며, 왕성한 삶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조용한 곳 - 명상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함께 하려는 것이지 세상과 차단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명상은 소음이 없고 세상과는 단절된 산속의 사찰이나 기도원과 같은, 세상과 차단된 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물론 조용한 곳에서 명상수련을 하면 이상적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명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적 소리, 아이들의 고함소리, 세상의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참다운 명상가는 명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껴안고 특별하게 가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수용적인 태도를 길러간다.

금욕 - 사람들은 명상가는 채식만 하고, 콩이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식품을 즐겨 먹고, 녹차를 마시고, 술이나 커피 같은 음료나 동물성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또한 오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해가면서 명상을 해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포기해버릴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금해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반대이기도 하다. 명상은 어떤 일이건 하는 일마다 그 일로부터 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것이다.

스승 - 좋은 스승이 있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명상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곳에서 명상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좋은 스승과 수련장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수련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가서 배우려 하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스승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떤 명상법을 수련하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최선을 다하면 된다. 특정한 방법의 명상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현갑 지음 / 담앤북스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육조 혜능스님이 법문하신 육조단경의 핵심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묵묵히 한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

잘 놓아지지 않아요

질문 여태껏 마음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뚱이의 병에 대해서는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을 꾸짖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놓지 않으면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 거를 그냥 비워지지 않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야, 우리가 밥을 먹는 데도 그대로 있지 않더라. 똥을 싸더라.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그러더라. 그러니 항상 찰나 생활이지 우리가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게 뭣이 있나?'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놓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대요. 그 어떻게 된 일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찰나찰나 살면서 응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아주 설거지를 하면서 탁탁 치워서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하하. 다 놓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놓고 가면서도. 돈을 한 묶음을 쥐고 가더라도 그건 놓고 가는 겁니다. 금방 쥐고 있다고 해서 고정되게 그냥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갖다가 놓습니다. 장 속에 넣든지 은행에 갖다 넣든지 증권에 갖다 넣든지 어디다 갖다 놓든지 하여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쥐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것은 놓고 가는 겁니다. 관리만 했다 뿐이지 놓고 가는 겁니다. 내 몸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면서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가 돼야 좋지, 놓을 수가 없다니, 그러면 그것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 소화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소화를 시켜서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거,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으면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공장에서 모두, 이건 우스갯소립니다마는, 위장이니 간장이니 직장이니 소장, 대장, 방광, 이자 이런 모두가, 심장이니 하는 모두가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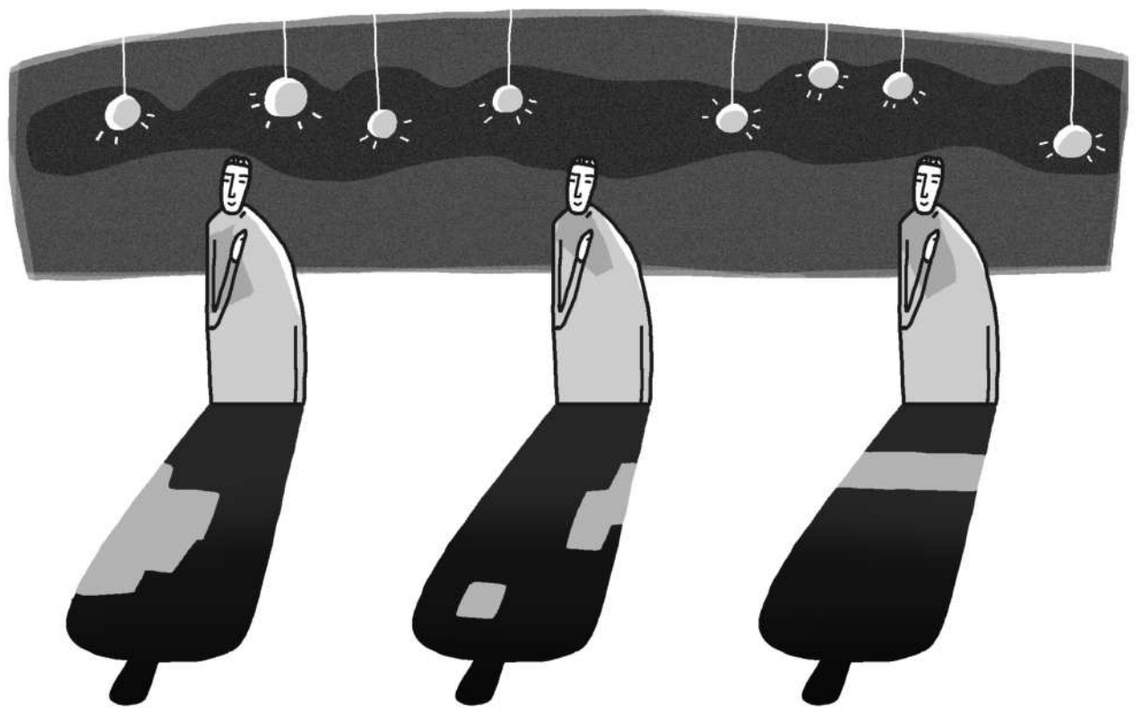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에서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를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에 놔라. 거기다 딱 일임을 하면, 어디 신호가 왔다, 아프다 그런다면 이거를 거기다 딱 맡겨 놓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팠거든, 이 몸에서.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호가 온 겁니다. "지배인, 이렇게 여기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아, 그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공장장이고 뭐고 다 이거는 서로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막아라." 하고서는 거기 주인공에다 탁 놨단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한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대처를 해야 금방 건강이 되찾아지죠. 이거를 들고선 여기가 아픈데 여기 이 형성시킨, 또 여기서 회전하고 있는 공장에다 맡기질 않곤 딴 공장으로 가요. 딴 공장으로 가서, 이 마음의 도리를 서로 벽이 없이 같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갖다가 맡기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는 병세가 많고, 유전성이라든가 업보로 나오든가 영계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나오든가 또는 몸에서 솟든가 이러한 것도 누구나가 다 이것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가 모자란다고 봐야죠. 70%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70%만 갖는 게 아니라 100% 다 가졌지만, 우리가 외관상 부러지거나 어디 잘못되거나 이러면 딴 기술자를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다 가지고 쓰되 100%를 다 가져라. 왜? 의사의 손이 가더라도 그거는 남의 손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 첫째는 놓고, 둘째는 아주 믿는 거! 그 믿기 때문에 놓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면 놓질 못합니다. 왜 자기를 믿지 못합니까, 글쎄? 아니, 남의 이름은 믿으라면 잘 믿으면서 왜 자기는 못 믿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대신 죽어 주나, 대신 아파 주나, 네? 대신 누가 자 주나, 먹어 주나, 똥 싸 주나? 아, 이거 큰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믿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 믿고 그저 놔요, 거기서밖엔 끌고 다닐 수 없다라는 걸.

생활 속에서 어떠한 괴로운 게 닥치더라도 '아이, 이것도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하겠지.' 하고 탁 놔 버리란 말입니다. 그저 놓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라 이겁니다.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면 거기서 체험도 얻을 수 있고,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구 문제도 마음을 낸다면…

질문 요즘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구 문제도 우리가 마음을 냄으로써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는 지금 몸뚱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뚱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구입니다. 우리 몸뚱이가 수명이 있듯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 생명이라고 볼 때 그래도 고등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최고로 치죠. 인간이 돼야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한마음으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포용력 있게 지혜롭게 걸림 없이 갈 수 있다면, 저런 달세계나 저런 모든 혹성들에게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에서 소생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지금 쓰면서 살고 있고 지수화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 속에서, 복합적인 재료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그 질량은 수만 개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발이 되는 것도 그렇고,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발이 되고 또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증강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깐 그건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자원이나 식량을 더 만들지 않고 곶감 꼬치 빼 먹듯 빼 먹으면 그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을 꼬박꼬박 빼다 쓰기만 하고 벌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장이 비는 것처럼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없을 때는 가져올 수도 있고 있을 때는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즉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굴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독 안에 들어 있다면 독을 굴릴 수가 없고, 독 안에서 벗어난다면 독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독이 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혹성 안에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서, 크나 작으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 22면으로 계속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

☞ 21면에서 계속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고 먼데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구름 잡는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리이고 길입니다. 또 그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또 나 역시 없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요기 요 법상을 생각하는 거나 저 달세계 생각하는 거나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도 서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 한 것은, 오고 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교류가 돼서 우리가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이익을 봐야 되고, 회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본다, 듣는다 또는 가고 올 수 있다, 그 마음을 서로가 교환하고 알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다 이럴 때는 거기에 통신력과 광력, 전력, 자력이 충만히, 우리가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만히 교류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나 우리 살아나가는 계발의 문제라든가, 또는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건데, '깨달으면 한계가 없는 것도 알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한계가 있는 것만 알지 마시고 한계가 없는 것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무한량,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는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를 가지시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멀리 있는 것과 우리가 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벽이 쌓아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내 집이 망가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서 얻어먹겠습니까? 또 재료가 없다면 어디서 나서 쓰겠습니까? 이런 거 세 가지만 말해도 우리는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충만하고 교류가 될 수 있고 벽이 없고 그렇다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인데, 그럼 몸하고 지구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몸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도 주인이 없으면 얼른 망가질 거고, 내가 깨달아서 주인이 있다면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벗고 싶으면 벗고 말고 싶으면 말겠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옷을 벗는 것도. 그렇게 한계가 있듯이 그럼 지구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겉껍데기가 있고 속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셋째 번에 아주 그 얇은 껍데기가 우리 뱃가죽에도 있듯이 또 있습니다. 별성도 껍데기를 벗으면 새 빛이 나면서 다시 살듯이, 인간도 이 껍데기를 벗고서 다시 또 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치에 의해서 우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몸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고, 났다가 다시 꺼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혹성이나 저러한 별성 같은 거는 이것이 꺼멓게, 예를 들어서 그 껍데기를 벗으면서 그대로 속에서 새 빛이 다시 날 수 있는 것이 그게 한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억 년이 가든지 십억 년이 가든지 일억 년이 가든지 그건 한계에 따라서 어느 때 이렇게 되고 어느 때에 요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예언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달렸습니다.

그게 못 미더우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정감록에 말입니다, "물에서만 배가 다니는 게 아니라 땅으로도 배가 다니고, 땅 위에는 거미줄이 얽히고, 그 거미줄을 따라서 배가 둥둥 떠다니고 공중으로도 나중에는 배가 떠다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친놈, 미친 소리, 허공 잡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 놨어도 반이 다 타 버리고 말았죠. 누설이 된다고 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 박사들은, 몇백 년 전 박사들이 '지구가 돈다' 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했다죠. 여러분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쳤던가요?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도 미쳤나요?

그런데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금은 그 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가 발전이 되고 능력이 생겨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한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든 했든 스스로서 알게 되고, 스스로서 계발하게 되고, 스스로서 그런 심성 과학이 발전이 되고, 천체물리학이 발전이 되고, 천문학이 발전이 되고 이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아니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가지고 있느니라." 했다면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집이 망가지거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지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래도 거기다가 놓을 줄 아니까, 우주 천지에 직결이 돼 있으니까 다 알고 다 수습하겠구나. 괜찮겠구나. 부딪치지 않겠구나. 줄지 않겠구나. 팽창되지 않겠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 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참 거룩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쓰는 데서 연방 직결이 돼 있거든요. 연방 직결이 돼서 가설이 돼서 통신이 되거든요, 우주하고도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하지만 차차 공부를 더 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 더함도 덜함도 없는 그 가운데서
> 바로 자유스럽게 쓰는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
>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부처도 집어삼키라는 뜻은

질문 선지식들께서 부처도 집어삼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그릇으로는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어린애를 낳아 놓으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발자국을 떼어 놓기 위해서 천방지축 걸어가죠. 그럴 때 그 어린애가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지는 않겠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내가 발걸음을 떼어 놓는다는 기쁨에만 그냥 뗄 뿐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 자체는 살아가면서 항상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쩌나. 잘못돼서 넘어지면 어쩌나. 구덩이에 빠지면 어쩌나. 잘못되면 식구가 다 죽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작용이 나오고, 작용이 나오면 바로 어떠한 경계가 완전히 나타나죠. 망하든지 흥하든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이런 말도 하죠.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 가운데서 바로 자유스럽게 쓰는 그 마음씨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둘이 아니다. 둘 아닌 가운데에 내 마음이 스스로 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아까 어린애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여러분은 관습이나 습관에 젖어서, 고정관념에 젖어서 영 옴치고 뛰질 못해요. 이론만 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행하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한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이고 작용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서 한 발짝 떼어 놓고 행을 하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말과 이론으로, 아무리 지식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들, 즉 말하자면 부처님 이름도 허다하게 많죠? 그 많은 이름의 부처님들도, 역대 조사들도 다 "그저 부처님이 이 앞에 있어도 집어삼켜라. 역대 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어삼켜라.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집어삼켜라. 일체를 다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라." 하신 뜻은 무엇이냐.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떠할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마음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마음은 체가 없어요.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명의 선지식들을, 부처님들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한 찰나에 이 세상을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들고 나는 문은 한 문이자 한 구멍이에요. 그게 문 없는 문이에요. 한 세상을 다 집어넣고, 가정을 다 집어넣고, 역대 조사 역대 부처님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다 내놓아야죠? 그래서 "다 버리고 나니까 다 얻더라. 얻고 나니까 버릴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죠. 모든 걸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집어넣었으면 다 내놓을 줄 알아야 그게 보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변화하고 화(化)하면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변화!' 이 말이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변화가 어떻게 돼 돌아가나?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변하고 화하고, 또는 고정됨이 없이 나투면서 찰나찰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또 공생, 공용, 공심,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공동분담으로 돌아가니까, 나를 세울 게 없으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다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으로나 이론으로나 학식으로나 아는 거를 다 놔 버려야죠. 그것을 놔야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구멍에다 놓는다면 놓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겨나니까, 역시 한 구멍으로 들이고 내는 그 작용이 그대로 법이죠. 나 혼자만이 안다고 세워 봤자죠.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해 봐도, 몸뚱이 속에 수많은 중생들과 더불어 자기 마음의 부처가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 혼자 살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고, 이론으로 잘 알고, 한마음 공부를 잘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둘이 아닌 까닭에 '내세울 게 없다' 는 얘기죠. 내세울 게 없는 자기 몸뚱이를 존재로서, 관리인의 시자로서 둘 아니게 절대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하나하나 어떠한 부분이든지 맡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놈이 다 하는 거지, 딴 데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묘한 도리로 볼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으로 입력이 됐던 것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그릇은 항상 빈다' 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입력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믿고, 자꾸 누적되지 않게 그 뿌리에다 그저 닥치는 대로 넣으세요. 부처님이 닥쳐도 '둘이 아니다' 하고 넣고, 그저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곤 다 그냥 놓는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새로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간지옥도 무너진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새 그릇에 담기면서 그릇이 비고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새로이 넣는 것이 현실에 나오고, 현실로 나오면 즐거움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니까 안 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매사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다복할 수 있고,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다문화시대와 자비윤리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지구촌서 다문화 사회 균열 심각
정체성 약화 인한 사회분리 초래
폐쇄적 민족주의 · 부족주의 우려

공생적 정체성 가진 자아의식 형성
다문화 문제점 극복도 가능케 해
연기 바탕 자비 윤리 절실한 사회

지금 프랑스 전체가 격렬한 시위로 흔들리고 있다.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으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망한 소년의 할머니가 폭력 시위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한동안 다문화 사회의 전형적인 모범 사례로 거론되곤 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다문화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부족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의 틀 속에서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공동체적 관계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조너던 색스(Jonathan Sacks)가 지은 〈우리가 함께 짓는 집(The Home We Build Together)〉에 잘 나타나 있다. 2005년 7월 7일 런던 중심가의 연쇄 폭탄테러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입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테러를 한 무슬림 청년은 해외의 알카에다 조직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영국 국적의 청년이다.

이 사태는 다양한 인종, 종교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겠다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프랑스가 겪고 있는 사태도 같은 경우이다.

색스 교수는 전체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지만 정체성 약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초래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문화 사회를 '호텔로서의 사회'로 비유하고 이민자를 호텔 투숙객으로 비유하고 있다. 즉 격리된 다문화 사회일 뿐이지 '다문화적 공동체'는 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 한국도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 유학생 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속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도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의 건설을 두고 일부 기독교 신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서구인과 이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끼면서 동남아 등 경제 후진국 사람과 이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꽤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하면 '부족에의 회귀' 현상이 일어나 사회통합의 큰 장애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향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생적 정체성'을 가진 자아의식의 형성에 있다. 이것을 '열린 정체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세계화 사회는 타자와의 만남의 광장이 확장되고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아는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정신적 여백을 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비 윤리이다.

자비는 연기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하나의 그물코 안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의존적 상호 발생으로 보는 연기론적 윤리를 '상호 윤리(mutual ethics)'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비 윤리이다. 자비는 평화와 배려의 최고 가치이다. 여기서 공생적 정체성과 열린 정체성이 나온다.

다문화 사회는 인류 진화의 착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에 역류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타자에 대한 분별심이 미움과 차별로 변하고 있다. 참으로 붓다의 지혜와 자비가 절실한 사회이다. 불교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큰 정신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불교와 불자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하겠다.

社 說

대학생 전법 활성화 마중물 되길

올해 한국불교 화두는 '전법'이다. 지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밝힌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발원으로 '전법 활성화'의 화두가 공론화되기 시작됐다.

이 같이 자승 스님이 간절하게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로 살아가자"고 대중에게 설파한 것은 최근 한국불교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 징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다. 2004년 당시 24%였던 불교 인구는 2014년 22%로, 2021년에는 16%로 줄었다. 개신교 역시 2004년 21%에서 17%로, 가톨릭은 7%에서 6%로 감소했다.

2000년대 이후 종교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에 있다. 2004년 당시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1%, 2021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22%에 불과하다.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조사 때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계층포교 붕괴 상황…대학생 전법 복원 '환영'
"대학생 전법이 한국불교 중흥" 발원, 실천을

2030세대의 탈종교 현상 가속화에 사실 불교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간 세대전승도, 생애주기별 계층포교도 사실상 붕괴됐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상월결사가 사단법인을 창립하며 청년 포교를 제1과제로 삼은 것은 탁견(卓見)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상월결사는 조계종 포교원과 학교법인 동국대와 대학생 전법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에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 전법위원 22명을 위촉해 전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올해 5월 이후부터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을 위한 TFT 회의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지역과 계층 등을 아우르는 전국구 전법 조직체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서울과 경기 · 인천, 대구, 부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의 지역본부장으로 위촉됐으며, 24개 교구본사에서 추천된 284명 스님들이 지역 대학 전법을 책임지는 전법위원으로 나섰다. 각 분야 전문 출 · 재가자들도 전법위원으로 위촉됐고, 그 수만 574명에 달한다. 이날 출범식은 '역대급' 전법 조직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시작과 목표가 웅대했던 만큼, 사업 추진도 면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돼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젊은이들을 포교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생각을 벗어나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계획까지 촘촘히 세워서 정밀한 전략지침의 메뉴얼에 따라 포교전법을 해야 할 것"라고 했던 제언을 귀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불교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맞춤형 전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했던 구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법을 한다면 원력과 정재만 낭비할 뿐이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오늘의 출범식이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불교 중흥에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무너진 대학생 · 청년 전법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사부대중이 함께 할 전법의 여정이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대학생 전법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 존재의 중심

제 아무리 복잡한 일일지라도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착(歸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나 자신은 곧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곧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으로써 일체의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이 우주의 중심이며, 나라는 것은 무한한 우주 속에 떠 있는 하나의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놈은 꽤나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만사(萬事)는 편안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잘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마음이 들뜨거나 괴롭거나 흔들리게 되면, 모든 일의 중심이 어긋나게 되고 결국 평화도 깨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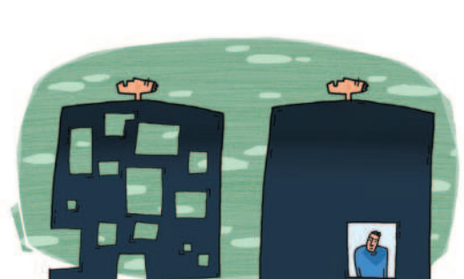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고요해집니다. 이때가 생명의 중심이 됩니다. 밖이 소란스럽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밖의 경계가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내면의 공간이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내면의 공간이 커질 때 창의력도 생기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면 마음을 쉬라고 합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을 멈춘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뇌에게도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어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이 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금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모여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명상 수행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루 3분만이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수행을 해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